

국민식별번호와 영역별 식별번호 : 해외사례 분석

2014.11

진보네트워크센터

이 연구보고서는 4.9 통일평화재단의 후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목 차

1. 서론	5
1)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방법, 한계	7
2. 각 국가별 국민식별번호 및 영역별 식별번호 현황	10
1) 캐나다	10
2) 미국	12
3) 독일	14
4) 헝가리	17
5) 영국	19
6) 루마니아	21
7) 체코	22
8) 호주	22
9) 일본	24
10) 말레이시아	26
11) 필리핀	27
12) 캄보디아	28
13) 콜롬비아	29
14) 아르헨티나	30
15) 카메룬	31
16) 수단	32
17) 우간다	32
18) 남아프리카공화국	33

3.	국가별 국민식별번호와 그 특성	35
1)	국민식별번호의 존재여부	35
2)	의무발급 여부	37
3)	변경가능 여부	37
4)	이용규제 여부	37
4.	사회영역별 개인식별번호 분석	39
1)	여권 발급, 운전면허증 발급	39
2)	조세	40
3)	복지	41
4)	건강/의료	42
5)	금융	43
6)	모바일 통신 서비스	44
7)	성인인증	45
5.	결론	47
<별첨자료 1>	설문지	50
<별첨자료 2>	설문답변	55

1. 서론

1) 연구의 목적

2014년 1월 발생한 금융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도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여당 정치인조차 주민등록번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사실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신기록을 경신해왔으며, 그 때마다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이 주범 중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정책으로 이어졌다. 2013년 2월 18일부터 정보통신망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2014년 8월 7일부터는 사회 전 영역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었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제한은 주민등록번호 제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민간 영역의 통신사 및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며, 상당수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이 1000여 개에 달하지만, 이들 모두가 주민등록번호를 꼭 수집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현행 체제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의 고유 목적 외의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세를 위해서는 납세자에 대한 식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왔지만, 납세자번호와 같은 별개의 식별번호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등록번호를 ‘만능 식별자’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은 애초의 도입 목적을 위한 이용으로 한정하고, 다른 사회 영역에서는 서로 다른 식별번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내에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일련번호로 바꾸어야 한다면, 이미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하였다. 그 요지는 첫째, 임의번호 체계에 의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둘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 절차를 허용하며, 셋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을 정비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넷째 각 사회 영역에서는 목적별로 별개의 식별번호 체계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이는 그 동안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 단체가 요구해왔던 내용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정작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전면 개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전면 개편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과 혼란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주민등록번호의 전면 개편에는 일정한 혼란과 비용이 수반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연결되어 있는 제도, 관행, 서비스 등이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을 쉽게 파악하기도 힘들다. 사회 제반 영역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마냥 유지하는 것도 정답은 아닐 것이다. 정보화가 더욱 진척될수록,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피해도 더욱 커질 수 있으며, 뒤늦게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사회적 비용과 혼란은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은 제대로 되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전면 개편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 중의 하나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체제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다.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주민등록번호 없이 사회의 운영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상상력도 빈곤하고, 막연한 불안감도 만연해있다. 우리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하지 않은 다른 운영체제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떠한 국민식별번호 체제를 가지고 있는지, 보건의료, 금융, 통신 등 사회 각 영역에서 개인식별과 신원

확인을 위해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식별 체제가 얼마나 상호 연동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과 관련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방법, 한계

국민식별번호 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¹는 국가신분증, 혹은 국민식별번호에 대한 주요 국가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는데, 주로 각 국가의 신분등록이나 주거등록 제도, 주로 사용되는 국민식별번호 등과 관련한 역사와 현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교육, 복지, 보건의료, 조세, 금융, 통신 등 사회 각 영역에서 이들 식별번호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지, 각 국가에서 얼마나 다양한 식별번호 체제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국가의 보편적 국민식별번호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각 국가의 주요 사회영역에서 어떠한 식별번호가 이용되고 있는지, 한 국가에서 얼마나 다양한 식별번호가 이용되고 있는지, 각 식별번호는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및 문헌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은 각 국가에서 국민식별번호로 사용되는, 혹은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식별번호는 무엇인지와 그 특성(예를 들어, 언제 부여되는지, 변경 가능한지 등)을 묻고, 각 사회영역에서 해당 목적을 위해 어떠한 식별번호가 이용되는지, 그것은 국민식별번호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이 설문을 정보통신 정책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 시민사회단체 및 각 국의 개인정보감독기구에 발송하여 답변을 받았는데, 이를 통해 총 18 개국에서 22 개의 답변이 수집이 되었다. 각 대륙 별로 분석을 한 국가는 아래와 같다.²

- 북미 : 캐나다, 미국
- 유럽 : 독일, 헝가리, 영국, 루마니아, 체코

¹ 다음과 같은 논문을 참고하였다.

김민호 외,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방안연구, 2009.11,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고문현 외, 국가신분확인체계 발전방안연구, 2010.12,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
송희준 외,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연구, 2007.11.27, 행정자치부

² 자세한 설문 내용과 답변은 별첨 참고.

- 아시아태평양 :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 남미 :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 아프리카 : 카메룬, 수단, 우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설문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의 구체적인 맥락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설문 응답자에 대해 추가적인 질의를 해서 보충 답변을 받기도 하였다. 혹은 설문 응답자가 관련 자료를 보내주기도 했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각 국가의 관련 자료를 찾아 보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문 조사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해둔다. 첫째, 주로 설문 응답자의 답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착오 등으로 인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응답자가 확실하지 않다고 한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일부 응답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식별번호를 신청에 의해 발급받지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사실상 대다수 국민이 발급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 이를 의무적 발급으로 보아야 할지, 선택적 발급으로 보아야 할지는 응답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식별번호는 각 국가마다의 제도나 사회적인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가 주로 공공차원에서 제공되는 경우와 민간 차원에서 제공되는 경우에 의료와 관련된 식별번호의 필요성이나 용도, 그리고 의료 영역의 개인식별번호와 국민식별번호의 연동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설문에서는 각 사회영역의 제도나 운영방식과 관련한 질문을 포함하기 힘들었다. 설문 응답자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서로 다른 국가의, 서로 다른 사회영역의 제도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여하튼 각 사회마다의 이러한 맥락의 차이로 질문 자체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무엇이 각 국가의 국민식별번호(National ID number)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달리 다양한 식별번호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셋째, 신분증을 통한 ‘신원확인’과 국민식별번호의 수집 및 저장은 엄밀히 보면 구분할 수 있는데, 마치 국내에서도 이것이 혼재되어 이해되고 있는 것처럼(예를 들어, 신원확인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통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응답자의 답변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어떤 응답자는 신원확인 자체를 국민식별번호의 수집으로 이해하고 답변했을 수 있고, 다른 응답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넷째, 식별번호의 부여나 신분증의 발급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발급 대상에 따라 신원확인 방법이나 발급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국 국민인지, 이민자인지, 단지 국내 거주자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 연구는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상적인 경우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대상 자체가 달라지면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해외 사례 연구에 비해서,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국민식별번호 및 영역별 식별번호 시스템의 존재를 한층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2. 각 국가별 국민식별번호 및 영역별 식별번호 현황

이 장에서는 여러 사회 영역에서 어떠한 식별번호가 이용되고 있고, 이것이 국민식별번호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각 국가별로 정리하였다.

1)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사회보험번호(Social Insurance Number, SIN)가 국민식별번호로 사용된다. 그러나 법에 규정되거나 허가된 영역에서만 SIN 을 수집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SIN 카드는 다른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SIN 번호만 포함하고 있는데, 이조차 종이형태로 문서로 전환되고 있다.

- SIN 은 신청을 해서 발급받게 되지만, ‘서비스캐나다(Service Canada)’ 에서 출생 등록과 SIN 발급을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된 ‘신생등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³ 출생 시 혹은 그 이후에 부모가 신청을 하는데, 출생증명서나 이민증명서가 필요하다.⁴ 기존에는 플라스틱 SIN 카드(카드에는 번호만 보여지며 다른 개인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를 발급했는데, 2014 년 3 월 31 일부로 플라스틱 카드의 발급을 중단하고, 종이 형태의 문서로 발급하고 있으며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존의 SIN 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신원도용을 당했을 경우 새 SIN 번호를 받을 수 있는데, 기존 번호 역시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 SIN 은 캐나다 연금계획행정과 캐나다 고용보험프로그램의 고객 식별을 위해 1964 년 도입되었다. 1967 년에는 캐나다 국세청이 조세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현재 SIN 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정한 정부부처나 허가된 프로그램에서만 수집할 수 있다.⁵ 그러나 이러한 목적 외 수집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다만, 캐나다 프라이버시

³ 그러나, 각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⁴ <http://www.servicecanada.gc.ca/eng/sc/sin/>

⁵ <법에서 SIN 수집을 허용한 이용>

- 캐나다 연금계획, 노인 안전 및 고용보험부담 혹은 청구 (애초의 SIN 도입 목적)

커미셔너는 SIN 을 요구 받을 때, 법률에 의한 것인지, 왜 필요한지 묻고, SIN 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에게 진정하라고 고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 문서법(PIPEDA)’에 의해, SIN 을 요구하는 단체나 회사는 수집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캐나다는 SIN 에 대한 상세한 관리 규칙을 가지고 있다.⁶

- 여권 발급 시에는 출생증명서나 이민증명서를 통해 신원확인을 하며, SIN 은 필요하지 않다. 운전면허증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관리하며, 출생증명서나 여권으로 신원확인을 한다.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에서 SIN 을 수집하지 않는다.
- 조세를 위해 전자신고번호(e-file number)를 부여 받는데, 이는 SIN 과 연결되어 있다. 고용주는 전자신고번호가 아니라 SIN 을 수집한다.

-
- 소득세 식별
 - 은행, 신탁회사, 투자회사 (당신에게 이자가 있는 금융상품/서비스를 팔 때 - 저축증권이나 은행계좌)
 - 다양한 재향군인수당
 - 캐나다 학생대출 혹은 금융지원
 - 캐나다 교육저축보조금
 - 유류 및 항공유류세
 - 캐나다 농산물 위원회법
 - 노동조정수당법
 - 조세환급할인규칙
 - 경마장 감시규칙
 - 채권압류규칙(가족질서 및 합의이행 지원법)
 - 캐나다 선거법
 - 캐나다 노동기준규칙 (캐나다노동규약)
 - 농장수입보호

<SIN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프로그램>

- 이민조정지원 프로그램
- 수입및건강관리프로그램
- 소득세 이의 및 반복결정
- 노동조정평가위원회
- 직업적 방사능노출을 위한 국가노출량 등록소
- 지역 및 원주민 주거 프로그램
- 사회적 지원 및 경제개발 프로그램

(https://www.priv.gc.ca/resource/fs-fi/02_05_d_02_e.ASP 참고)

⁶ <http://www.servicecanada.gc.ca/eng/about/reports/sin/cop/toc.shtml>

- 복지 서비스는 연방 혹은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조세 목적 외에는 SIN 을 수집하지 않는다.
- 각 지방정부는 고유한 건강보험체계와 건강보험번호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SIN 과 연동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은 조세정보와 연동되지 않으며, 조세 기록은 최고의 기밀이 유지되는 정보이다.
- 이자가 발생하는 은행계좌에는 SIN 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업체도 요구할 수 있지만 선택적이다. 그들은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SIN 을 신용조사를 위해 사용한다.
- 모바일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해 신원확인을 해야 하지만 SIN 을 수집하지는 않는다. 후불제의 경우, 운전면허증, 건강카드, 학생 ID 카드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된다.

2) 미국

미국에서 국민식별번호와 같이 쓰이는 것은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이다.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급여를 받거나 여타 주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다수 국민이 부여를 받고 있다. SSN 이 상당히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도 활발하게 제기되어 왔다.

- SSN 은 출생 후 곧바로 신청을 하는데, 부모가 대신 신청을 해준다. 신원 도용이 일어났거나, 삶에 위협을 받을 때, 종교적, 문화적 이유 등으로 변경할 수는 있으나 흔한 일은 아니다. 사회보장카드(social security card)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 통상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며, 면허증이 없는 경우 주의 ID 카드(state ID)가 이용된다. 이들은 연방이 아니라 주 차원의 규제를 받는다.
- 여권 발급을 위해서 시민자격(앞서 발급된, 유효한 미국 여권, 인증된 미국 출생증명서, 해외출생영사확인증, 시민증, 귀화증) 및 신원(앞서 발급된 미국 여권, 귀화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현역공무원증, 현역군인증)을 증명해야 하며, 사회보장카드를 보여줄 필요는 없으나 SSN 은 제공해야 한다.

- 운전면허증은 주(state)에서 관리한다. 뉴욕주의 경우,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및 이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사회보장카드 및 추가 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⁷
- SSN 은 조세 목적으로도 이용된다. 미국의 납세자식별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는 SSN 을 비롯하여, 고용주식별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개인납세자식별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조세환급자식별번호(Prepare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PTIN) 등이 사용된다.⁸ SSN 은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다른 번호들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발급한다. 고용주, 기업, 정부기관 등은 EIN 을 사용한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사회보장번호를 수집한다.
- 복지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에 따라, 그리고 연방 혹은 주 차원에서 관리/규제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사회보장번호가 요구될 수 있다. 복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다른 번호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의 경우, 배우자를 통해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배우자의 사회보장번호가 자신의 의료번호(medicare number)가 된다.
- 의료 서비스의 경우, 병원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사회보장번호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별개의 건강보험번호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Obamacare)의 시행으로 시스템이 변화해가는 과정이다. 완전히 민영화되어 있을 때는 의료보험이 사회보장번호에 연동되어 있지 않았고, 현재도 의료보험을 위해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바마케어에서는 자격요건이나 급여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SSN 이 필요할 수 있다.
- 금융기관에서는 통상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하고 저장한다.
-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 업체와 계약할 때 신용 조사를 위해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 후불제의 경우 사회보장번호와 사진이 있는 신분증(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통상적으로 요구한다. 선불제의 경우에는 통상 사회보장번호가 필요 없으며, 많은 보증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도 필요 없다.
-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사회보장번호의 광범위한 수집, 이용에 우려를 표시해왔다.⁹ 사회보장번호는 사회보장법 시행을 위해 1936 년 건강 및 인적 서비스(Health and Human Service)에 처음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연방정부가 독점적으로 이용했는데, 국민들의 수입을 파악하여 각 노동자 계정에 입금될 사회보장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한 것이다. 이후 1961 년 의회는 납세자 식별을 위해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이용을 허락하였다. 1974 년 제정된 프라이버시법 7 장(section 7)은

⁷ <http://dmv.ny.gov/node/63>

⁸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axpayer-Identification-Numbers-\(TIN\)](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axpayer-Identification-Numbers-(TIN))

⁹ <http://www.epic.org/privacy/ssn/>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할 때, 의무적인지 혹은 자발적인지, 요청의 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는지 알리도록 하고 있다. 당시에 의회는 사회보장번호가 보편적 식별자로 널리 사용되는 것의 위험을 인식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서만 사회보장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그러나 사회보장번호의 수집과 이용은 민간영역으로 점차 확대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금융영역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식별자로 사회보장번호를 수집하며, 학생 신분증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학생들의 명의 도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미국의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는 사회보장번호를 식별자(identifier) 및 인증자(authenticator)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은 신원 도용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으며, 매년 50~70 만명의 신원 도용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0 년 통과된 사회보장보호법(Social Security Protection Act)은 정부가 사회보장번호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2 년 8 월, 미국회계감사원(GAO)은 보고서에서 4800 만 메디케어 수혜자가 ID 카드에 노출된 사회보장번호 때문에 명의도용 위험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미국보건복지부(HHS)도 GAO 의 권고에 동의하지만, 사회보장번호의 제거를 위해서는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⁰

3) 독일

사실상 독일에는 국민식별번호가 없다. ID 카드의 번호가 있지만, 그 이용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여권, 운전면허증, 조세, 복지 등 사회 제 영역은 고유의 식별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ID 카드 등을 통해 신원확인만 하지만 ID 카드번호를 저장한다든가, 상호 연동되어 있지는 않다. 독일은 영역별 식별번호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 있다.

- 과거 서독 정부는 모든 시민에게 부여하는 12 자리 개인식별번호(Personenkennzeichen, PKZ)를 만들려고 했었다. 그러나 1973 년 시민등록에관한연방법에 의해 구현하려 한 이 시스템은, 독일 의회가 모든 국민에 대해 식별자를 부여하는 것은 기존의 법 체제에 부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거부하였다.¹¹
- 모든 독일 거주민은 16 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ID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Personalausweis” 라고 불리는 ID 카드에는 고유번호가 있는데, 이것을 국민식별번호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 이용은 제한되어 있고 보편적으로 가장

¹⁰ <http://www.fiercehealthit.com/story/gao-pushes-removal-social-security-numbers-medicare-ids/2013-10-18>

¹¹ http://en.wikipedia.org/wiki/National_identification_number#Germany

많이 쓰이는 것은 아니다. 2010 년에 "Neuer Personalausweis"라는 새 ID 카드(nPA)¹²가 도입되었는데, 이 카드는 전자주민증으로서 저장공간, 암호기술, RFID 기반 무선통신 등 새로운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¹³¹⁴

- ID 카드(nPA)의 유효기간은 10 년¹⁵이며, 유효기간이 지나 갱신할 때 혹은 카드를 분실했거나 결혼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 등 새로운 ID 카드를 발급받으면 새로운 번호가 부여된다.¹⁶ 번호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ID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과거의 ID 카드, 여권, 때로는 출생증명서로 신원을 확인하는데, 법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신원 확인 후 모든 사본은 폐기되어야 한다.
- 민간 기관은 ID 카드 번호를 수집, 처리하는 것이 제한된다. ID 카드 번호를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하거나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 번호를 이용,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공영역에서는 개인식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이용, 처리할 수 있지만, 이 번호를 기록하거나 다른 데이터와 연결하는 것은 더 제한적이다. ID 카드 번호는 신분증등록소(identity card register)에 기록되며, 그 등록소는 지역적이고 이에 대한 접근은 제한된다.
- 여권¹⁷ 발급시, 신원 확인은 통상적으로 ID 카드나 기존 여권 등을 이용하며,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이용한다. 여권번호는 여권 발급기관에 저장되지만, ID 카드

¹² nPA 에 대한 법적 규제는 개인식별자법(Personalausweisgesetz, PAuswG), 특히 § 1 para 1 에서 규정하고 있다. <http://www.gesetze-im-internet.de/pauswg/>

¹³ 독일은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에 따라, 16 세 이상 모든 독일 시민은 ID 카드나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현재의 ID-1 type 은 2010 년 11 월부터 발급하기 시작했으며, 전자여권과 유사한 RFID chip 을 가지고 있으며, 칩에는 ID 카드 정보, 사진, (소지자가 원할 경우) 지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자정부에서의 연령확인 같이 온라인 인증에도 사용할 수 있다. 사기업이 발행하는 전자서명도 칩에 저장할 수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German_identity_card)

¹⁴ 독일의 ID 카드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카드 혹은 칩 안에 포함하고 있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눈색깔 및 키, 사진(칩), 지문(선택정보, 칩), 혼전 이름, 가명(선택정보, 세레명, 예술가 가명), 학위(PhD), 국적, 출생지, ID 번호, 발급일, 만료일, 발급기관,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이용할 번호 등 전자적 식별메커니즘(§ 21 PAuswG), 전자서명(§ 22 PAuswG)

¹⁵ 24 살 미만의 경우 유효기간이 6 년이다. (PAuswG 6 조 para 1, 3)

¹⁶ 반면, 납세자번호(the tax payer's account number), 건강보험카드번호(the health insurance card number), 사회보험신분카드번호(the social insurance identity card number) 등은 변경되지 않는다.

¹⁷ Passgesetz http://www.gesetze-im-internet.de/pa_g_1986/index.html

번호는 저장되지 않는다. 독일 여권은 ID 카드 외에 독일 정부가 독일 시민의 신원확인을 위해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이다. 독일 여권은 10 년간 유효하며(24 살 미만은 6 년간 유효), 2005 년 11 월 1 일 이후, 독일 여권은 겹표지에 RFID 칩을 내장하고 있다. 칩은 인쇄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사진 파일을 포함하고, 전자서명으로 보호된다. 독일 여권은 ID 카드와 같이 지방 등록사무소에 의해 발급된다. 신청자는 직접 새 여권을 신청해야 하며, 새로 발급되는 여권의 데이터는 지역에 저장된 등록문서의 개인 데이터의 인가된 복제본이 된다.¹⁸

- 운전면허증 발급 시에도 통상 ID 카드나 여권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그러나 ID 카드 번호를 저장하지는 않는다.
- 전자정부 서비스에 접속할 때에는 ID 카드의 칩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원 확인을 한다. 이 때 서비스에 꼭 필요한 데이터만 전송되도록, 프라이버시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¹⁹ 높은 수준의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에만 의존하지는 않고 일정한 서면 제출이 필요하다.
-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 "Steueridentifikationsnummer")²⁰는 모든 개인 및 법인에 부여된다. (2007 년 이후) 태어날 때 부여되고 평생 유효하며, 사후 20 년 후에 삭제된다. 연방세무당국에 저장되고 금융 당국으로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ID 카드번호와도 연동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을 통한 연동(이들은 종종 함께 저장됨)은 허용되며, 관련된 경우에 충분한 식별성을 제공한다. 소득세와 사회보장비용이 기업주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기업주는 피고용인의 납세자번호, 사회보장/보험 번호를 저장한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사회보장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통일적인 사회보장번호는 없다. 공공건강보험번호, 법정연금보험번호 등 여러 번호가 사용된다. 이들 번호의 ID 카드번호와의 연동은 금지되어 있다.
- 공공건강보험이 지원되는 경우 건강보험카드("elektronische Gesundheitskarte", eGK)가 사용된다. 즉, 병원에 이를 제시하면 보험가입자로 인정된다. 현재 강력한 전자식별관리(electronic identification management) 기능을 가진 새로운 버전의

¹⁸ http://en.wikipedia.org/wiki/German_passport

¹⁹ eID function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personalausweisportal.de 참조.

²⁰ 2008 년 기존의 조세파일번호(Tax File Number)를 대체하여 조세식별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 TIN)가 도입되었다.

건강보험 ID 카드가 출시되고 있다. 민간 건강보험을 위해서는 이름과 주소가 요구되고, 신원증명서류(여권이나 nPA-ID 카드)가 요청될 수 있다. 건강보험 서비스 제공자는 조세기록에 접근할 권한이 없으나, 수입과 관련된 어떤 정보들이 교환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공공보험회사에 자신의 수입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반대로 공공보험회사는 어떤 정보를 조세당국에 전달해야 할 경우도 있다.

- 입학 시 법적 요건은 통일적이지 않다. 때로 부모는 아동의 출생증명서나 다른 문서로 신원 증명을 하며, 다른 경우에는 그러한 문서가 요구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식별번호를 저장하지 않으며, 일부 주는 아예 금지하거나, 다른 주는 특정한 조건 하에 허용하고 있다. 학생카드는 학교 DB 정보에 근거해서, 그리고 학생의 신분을 아는 선생님에 의해 발급된다.
-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개설 시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ID 카드나 여권으로 신원확인을 하고 이를 복사한다. 온라인으로 할 때는 ID 카드의 온라인 인증기능(eID-online-function)을 이용한다. ID 카드번호나 여권번호가 은행/카드사에 저장되지만, 사기업이 그것을 자동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통신법은 소비자 데이터의 정확성을 담보하도록 요구하지만, 그 방법을 특정하지는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동통신 계약 시 어떤 종류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만, 판매 시점에 제한되며, 식별번호를 기록하지는 않는다. 온라인으로 신원증명 없이 선불폰을 구매할 수도 있다.

4) 헝가리

과거 헝가리에는 개인식별코드(Personal identification Code)라는 보편적 식별자가 있었다. 그런데 1991 년 헌법재판소는 보편적 식별자가 위헌이라고 결정(15/1991)했고, 새로운 민주헌법(2011 년에 “기본법”으로 대체됨)은 보편 식별자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1996 년 No.XX 법은 세 개의 주요 부문 식별자를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식별코드(Social Security Identification Code), 조세식별코드(Tax Identification Code), 개인식별자(Personal Identifier). 이 식별자의 목적과 어떤 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지가 규정되어 있다. 민간에서는 개인식별자를 수집할 수 없다. 헝가리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영향으로 기능 중심의 분산적인, 영역별 식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이를 권고하고 있다.

- 개인식별자(Personal Identifier)는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되는데, 출생등록소(birth registry)의 정보를 받아 중앙인구등록소(central population registry)가 출생 시에 부여한다. 같은 번호가 오류로 발급되었다든지 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 국가신분증등록증(National ID card)은 개인식별자(Personal Identifier)를 포함하지 않으며, 단지 고유한 카드 번호가 부여된다.²¹ 개인식별자를 포함한 별개의 카드가 있는데, 이는 ID 카드보다 그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통상 신분증명은 ID 카드, 여권, 운전면허증 등 세 개의 공식 신분증으로 한다. ID 카드 발급은 공식적 출생증명서나 공식적 결혼증명서를 갖고, 직접 방문하여 서명 후 수령한다.
- 여권은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ID 카드, 운전면허증, 유효 여권 등 신분증으로, 만일 신분증이 없으면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서로 신원확인을 한 후에 발급받는다. 통상적으로 개인식별자를 포함하고 있는 별개의 카드 및 주소(permanent address)를 증명할 카드(물리적으로 이는 개인식별자 카드와 동일하다. 이 카드의 뒷면에 주소가 포함된다)와 함께 ID 카드가 요구된다. 여권 발급기관은 개인식별자를 수집한다.
- 운전면허증은 개인식별자(및 주소) 카드와 ID 카드(혹은 여권)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 발급받으며, 개인식별자와 연동된다.
- 전자정부 서비스는 지방정부에 가서 신분증(통상 ID 카드)으로 신원확인하고 전자적으로 사용할 이용자명(username)과 비밀번호를 부여 받는다. 인가된 전자서명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 조세 목적으로는 조세식별코드가 존재한다. 시민에게 부여되는 조세식별코드와 별개로 기업체나 개인사업자를 위한 조세번호(Tax number)도 있다. 조세식별코드는 개인식별자와 연동되지 않는다. 고용주는 조세 목적을 위해 조세식별코드를 이용하는데, 고용주가 해당 목적을 위해 세 개의 부문 식별자를 모두 수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1996 년 No. XX 법은 세 개의 부문 식별자들이 별개로 처리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고용주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 복지 서비스를 위한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3 개의 신분증(ID 카드,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가 사용된다. 이에 더해 대부분의 복지서비스가 조세와 연결되기 때문에

²¹ ID 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사진, 출생지, 어머니의 이름, 국적, 서명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주소, 신체 특성, 지문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식별코드도 이용된다. 복지서비스가 건강상태와 관련될 경우 사회보장식별코드도 요구된다. 그러나 개인식별자가 복지 서비스와 연계되지는 않는다.

- 병원에서는 사회보장식별코드를 사용하며, 이는 개인식별자와 연계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기관이 조세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소득 계층을 위한 특별한 건강 서비스 제공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 학교 입학 시에는 개인식별자(및 주소) 카드가 필요하다. 특정 연령 이하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것도 필요하며, 학교는 이를 수집한다. 학생 카드는 중앙에서 관리하는데, 학생들은 고유한 국가통합카드시스템(National Unified Card System, NEK) 식별자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지방정부를 방문하여 세 개 신분증 중 하나와 주소가 포함된 카드를 보여주어야 한다.
- 은행계좌 개설 및 카드를 위해 세 개 신분증 중 하나, 주소가 포함된 카드, 그리고 서명이 필요하다. 은행 등이 개인식별자를 수집하지는 않지만, 세 개 신분증 중 하나의 식별번호를 기록한다.
- 모바일 통신사는 개인식별자를 수집할 수 없지만, 소비자가 제시한 신분증 번호를 등록한다. 후불제의 경우에는 세 개의 신분증 중 하나와 주소 카드를 보여주어야 하며, 이에 더해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다른 신분증 혹은 조세식별카드, 사회보장카드, 은행카드 중 하나를 보여주어야 한다.
- 민간기업은 개인식별자를 수집하지 못하며, 인터넷에서의 성인 인증은 주로 자기 인증(self-declaration) 방식, 즉 본인이 성인인지 아닌지 단지 선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5) 영국

영국에서 국민식별번호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국가보험번호(National Insurance Number, NIN)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NIN은 미국의 사회보장번호(SSN)만큼 보편적으로 이용되지는 않으며, 고용, 조세, 연금 등 정부 기관에서만 사용한다. 그리고 영국에는 NIN을 포함한 신분증 국가신분증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²²

²²영국에서는 신분증 소지 의무 역시 없다.

http://en.wikipedia.org/wiki/National_identification_number#United_Kingdom

- NIN 은 의무적으로 발급되며, 대부분 16 세 생일 직전, 혹은 영국에 도착했을 때나 직장에 등록할 때 발급이 된다. 임시번호가 부여될 때는 바꿀 수 있지만, 다른 경우는 번호를 변경할 수 없다.
- 영국에는 국가신분증이 없다. 2006 년 통과된 ‘신분카드법’(Identity Cards Act 2006)²³은 인권단체, 전문가, 정치인 등의 많은 반발²⁴을 불러왔다. 내국인에 대한 ID 카드발급은 2009 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의무발급은 아니었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발급을 받았다. 그러나 이조차 2010 년 ‘신분증법’(Identity Documents Act 2010)에 의해 철회되었다.²⁵ 현재 영국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정도다.²⁶
-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이 필요하다. 1983 년 이전 출생자는 출생(입양)증명서, 1983 년 이후 출생자는 출생증명서²⁷ 와 부모 중 한 명의 영국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하다.²⁸ 여권발급기관은 NIN 을 수집하지는 않는다.
-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여권 등으로 신원증명을, 그리고 거주 및 나이 증명을 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신청할 경우, 운전면허발급 기관은 NIN 을 수집하게 된다.²⁹
- 조세를 위해 자영업자는 NIN 과 고유조세표시(Unique Tax Reference, UTR)를 부여 받으며, 피고용인은 NIN 을 이용한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NIN 을 수집하며, 국세청(Tax records with Revenue and Customs, HMRC) 혹은 수당기관(Benefit Agency-실업급여 지급기관)과 NIN 을 통해 연동한다.
- 건강보건 서비스를 위한 국가건강서비스번호(NHS number)가 존재한다. 이 번호는 NIN 과 연계될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 금융기관은 신원확인을 위해, 여권, 운전면허증, 혹은 거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명서를 활용한다.
- 모바일 통신사가 NIN 을 수집하지는 않는다. 후불제의 경우, 주소와 생년월일을 수집한다.

²³ http://en.wikipedia.org/wiki/Identity_Cards_Act_2006

²⁴ 국가신분증에 반대하는 NO2ID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다. <http://www.no2id.net/>

²⁵ <https://www.gov.uk/identity-cards-and-new-identity-and-passport-service-suppliers>

²⁶ http://en.wikipedia.org/wiki/Identity_document#United_Kingdom

²⁷ 출생증명서는 출생, 사망, 결혼 등을 관리하는 등록소에서 발급한다. 출생증명서를 받기 위해 부모는 출산 후 42 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²⁸ 자세한 내용은 <https://www.gov.uk/apply-first-adult-passport/documents-you-must-send-with-your-application> 참고

²⁹ 전자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9 자리 여권번호로 신원확인을 한다. 전자여권이 없다면, 기존 여권, 전자거주허가서, 영국귀화증명서 원본을 보내야 한다. 영국출생/입양증명서와 다른 서류를 함께 보내는 등 다른 방법도 있다. 온라인에서 신청할 경우, 국가보험번호 등 개인정보 확인에 동의하게 된다. 발급기관인 DVLA 는 직업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DWP) 및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을 통해 신원확인을 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gov.uk/id-for-driving-licence> 참조.

- 인터넷에서의 성인인증은 자기인증(self-declaration) 방식을 이용한다.

6) 루마니아

루마니아의 국민식별번호는 개인숫자코드(CNP, cod numeric personal, personal numeric code)이다. 13자리로 되어 있고³⁰, 한국과 같이 태어날 때 의무적으로 발급되며, 변경할 수 없다. CNP 은 법에서 규정한 목적 내에서만 이용되고 제 3 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루마니아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권, 운전면허증, 조세, 복지, 의료, 교육, 통신, 금융 등 다방면에서 CNP 를 이용하고 있다.

- ID 카드³¹는 14 살에 지역 등록소에서 발급받으며,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이름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10 년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ID 카드에는 발급지역 코드(두 자리)와 6 자리 숫자로 구성된 ID 카드번호가 존재한다. ID 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출생증명서, 혹은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집 계약서나 임대계약서), 혹은 결혼증명서가 필요하다.
-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발급 시, 14 세 이상은 ID 카드가 필요하며, 14 세 미만은 출생증명서와 부모/대리인의 신원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발급기관은 CNP 를 기록한다.
- 조세 및 복지, 의료 서비스 역시 CNP 를 이용한다. 아직 건강보험번호는 없는데, 조만간 건강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수입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건강 서비스 기관은 조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 학교 입학 시에도 CNP 를 이용한다. 출생증명서와 ID 카드로 신원 확인을 하며, 학교나 대학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학생의 CNP 를 수집한다.
- 금융기관에서는 ID 카드나 여권으로 신원확인을 하는데, 모두 CNP 를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역시 CNP 를 수집한다.
- 모바일 통신사 역시 후불제의 경우에는, ID 카드나 여권으로 신원확인하고 CNP 를 수집한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루마니아는 2012 년 이후 후퇴하고 있는데, 이용자 정보의 수집 및 보관에 대한 ISP 의 의무와 관련된 EU 법을 거부하였고, 2014 년 현재

³⁰ 1. gender 2-7 year, month, day of birth, 8-9 area (county) code, 10-11-12 random number, 13. verification code.

³¹ ID 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수록된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사진, 출생지, CNP, ID 카드식별코드(두 자리의 발급지 코드+6 자리 일련번호)

선불폰의 경우에도 신원확인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루마니아의 시민사회는 이 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 루마니아는 CNP 가 출생 시부터 의무적으로 부여되고, 여러 영역에서 통일적으로 CNP 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

7) 체코

체코의 국민식별번호는 출생번호(Birth Number, rodné číslo)이다. 한국과 같이 태어날 때 의무적으로 부여되며 바꿀 수 없다. 체코에서도 여권, 운전면허증, 조세, 복지, 의료, 금융, 모바일 통신 등 다방면에서 ID 카드로 신원 확인을 하고, 출생번호를 수집, 이용하고 있다. 다만, 금융과 통신 외에 일반 민간영역에서는 별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 ID 카드³²에는 출생번호 외에 신분증 번호가 부여된다. ID 카드는 15 세에 발급된다. 출생번호를 수집하고자 하는 기관은 수집 목적 등을 포함하여 등록해야 한다.
- 여권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ID 카드로 신원확인을 한다.
- 조세는 피고용인의 경우 출생번호, 자영업자는 기업번호(company id)를 이용하는데, 기업번호는 출생번호와 연결되어 있다.
- 복지, 의료 서비스도 출생번호 기반이며, 다만, 건강보험 기관이 조세 기록에 접근할 수는 없다.
- 금융기관도 ID 카드로 신원확인을 하며, 출생번호를 수집한다.
-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 선불폰은 신원확인이 필요 없으며, 후불제의 경우는 ID 카드로 신원 확인을 한다.
- 민간기업이 출생번호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통한 사전허락이 필요하다. 인터넷에서의 성인인증은 자기인증(self-declaration) 방식을 이용한다. 온라인에서는 출생번호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은행이나 통신사 정도에서만 이용하는데, 출생번호를 로그인에 사용하지는 않는다.

8) 호주

호주에는 국민식별번호라고 할만한 보편적 개인식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호주에서도 80 년대에 국민식별번호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광범위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쳐

³² 체코의 ID 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수록된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사진, 출생번호(Birth Number), 서명, 만료일, 신분증번호, 개인상태(결혼여부 등)

무산되었다. 대신 국가의료카드(national medicare card)가 도입되었다. 의료카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성인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통상적으로 이용된다.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신원확인이나 식별번호의 이용의 필요성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로 인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모든 성인들이 의료카드³³를 가지고 있다.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의료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아이들의 경우, 보통 엄마의 카드에 등록이 되며, 18세가 되면 자신의 카드를 갖게 되는데, 이는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으로 배달이 되어온다. 이름이 바뀌어도 새 번호가 부여되지는 않으며, 5년의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새 카드가 발급되지만, 새 번호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 여권발급을 위해서는 출생증명서, 거주증명(서비스 고지서 등), 정확한 이민자상태를 보여주는 외국인 여권 혹은 국가가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ID 카드(예, 운전면허증)가 필요하다. 어린이들은 학교 ID 카드를 이용한다. 의료카드가 신분증으로 사용될 경우, 그 ID가 수집될 수 있다.
-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신원확인을 위해 여권, 가정용 요금고지서(rates statements for households), 신용카드, 은행잔고증명서(bank statement), 사회보장문서 등 다양한 증명서가 활용될 수 있다.
- 전자정부 서비스와 관련해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정부 부처와 사전에 여러 증명 문서를 교환한다.
- 조세를 위해 개인 및 기업을 위한 별개의 세금납부번호(tax file number)³⁴가 존재한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세금납부번호를 수집하지만, 통상 이는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저장되지 않는다.. 세금납부번호(TFN)는 이름이 바뀌어도 번호가 바뀌지는 않는다.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 호주사업번호(Australian Business Number)가 부여된다.

³³ 현재로서 의료카드는 상세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국가 eHealth 시스템의 일환으로 카드에 의료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³⁴ <https://www.ato.gov.au/Individuals/Tax-file-number/Applying-for-a-TFN/Individuals-%28Australian-residents-for>

조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법이 적용된다. TFN 을 발급받을 때는 발급기관에서 출생증명서, 여권, 호주시민증 등으로 신원 확인을 한다.³⁵

- 사회보장 서비스를 위해서는 고유의 식별번호가 존재한다. 그리고 신원확인을 위해 요금고지서,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다.
- 학교 입학에 위해, 일반적으로는 학부모동의서를 작성하며, 출생증명서가 거주증명을 요구할 때도 있다. 학교에서는 부모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지만, 식별번호를 수집하지는 않는다.
- 은행, 신용카드 회사는 여권, 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 국가의료카드 등 다양한 신분증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지만 식별번호를 수집하지는 않는다. 필요에 따라 세금납부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 모바일 통신 가입 시에도 통상 운전면허증으로 신원확인을 한다. 후불제의 경우 신용카드 정보만 있으면 된다.
- 민간 영역에서는 식별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 인터넷에서의 성인인증은 자기인증(self-declaration) 방식을 이용한다.

9) 일본

일본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국민식별번호는 주민등록코드³⁶이다. 주민등록코드는 단지 공공행정기관에서만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조세, 복지, 건강보험 등 각 영역에서는 고유의 식별번호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조만간 공통번호(共通番号制度, MyNumber System)³⁷라는 새로운 국민식별번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 기존의 주민등록코드에 비해 훨씬 광범위한 사회 영역에서 범용 식별번호로 사용될 예정이다. 공통번호는 2015년 10월에 발급을 시작해서,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통번호의 도입으로 기존 사회영역의 운영이 어떻게 바뀔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사례를 들며, 공통번호 도입에 반대해왔다.

³⁵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d/Apply-for-a-TFN-on-the-web/?anchor=Proof_of_identity#Proof_of_identity

³⁶ 기본주민등록카드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코드, 사진, 그리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³⁷ 공통번호 카드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공통번호, 사진, 그리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포함한다.

- 주민등록코드는 태어날 때 의무적으로 발급되지만, 원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공통번호 역시 태어날 때 의무적으로 발급이 되며, 일반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지만, 번호가 오용되었을 경우(예를 들어, 번호가 유출되어 지역 정부가 허가 받지 않은 이용을 인지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공통번호의 사용목적은 법에 명시되어 있다. 목적 외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예외조항을 둘 수 있다고 한다. 주민등록코드와 달리 사기업도 공통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공통번호 카드는 신청에 의해 발급받는다. 공통번호를 발급기관에 신청하면, 발급기관에서 통지서가 오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에서 발급을 받는다. 공통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얼굴 사진이 필요하다.
- 여권 발급 시에는 가족등록증(family register), 거주증명서 혹은 기본주민등록카드, 얼굴사진, 운전면허증과 같은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신청서, 회송우편카드를 제출하면, 발급기관의 지방정부가 주민등록 네트워크(주기넷, zuki-net)에 이를 기록한다. 지방정부가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이를 들고 지방정부에 가서 여권과 교환한다. 여권 발급기관은 주기넷의 개인정보를 저장한다. 2016 년 이후에는 거주증명서나 기본주민등록카드 대신 공통번호 카드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 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 운전면허증 발급도 여권 발급과 유사하다. 2015 년까지는 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해 거주증명서 혹은 기본주민등록카드, 사진,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코드를 수집하지는 않는다. 2016 년부터 공통번호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 외에 알려진 것이 없는데, 공통번호를 수집할지는 알 수 없다.
- (2015 년까지) 전국적인 주민등록 네트워크(주기넷)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신원 확인을 위해 사용된다. 2016 년 이후 어떻게 될지 미지수이다.
- 조세와 관련하여, 소득세는 전국적인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납세자번호를 발급한다. 주민세는 지방의 세금으로 지방정부가 별도의 번호를 부여한다. 공통번호가 발급되면, 이는 납세자번호와 연동되게 된다.
- 복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 복지 시스템마다 별개의 번호를 부여해왔으나, 공통번호가 도입되면 어떻게 될지 미지수이다.
- 일본에서는 건강보험이 정부 관리 하의 사기업, 신디케이트, 지방 정부 등으로 나뉘져 있고, 통일된 건강보험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 입학 시 주민등록증(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이 필요하며, 번호는 수집하지 않는다.
- 금융기관은 법으로 신원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진이 있는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원 확인을 한다. 모바일 통신사 역시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이다.
- 인터넷에서의 성인인증은 자기인증(self-declaration) 방식을 이용한다.

10)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국민식별번호는 국가등록신분카드(National Registration Identity Card, NRIC)번호이다. NRIC 는 전자주민증이며, 신분증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기능과도 결합되어 있다. 또한, 공공 및 민간의 대부분의 사회 영역에서 NRIC 로 신원 확인을 하고 번호를 수집한다. 말레이시아의 상황은 주민등록번호를 민간, 공공에서 별다른 규제 없이 수집, 이용했던 한국의 과거 상황보다 나은 것이 없는 듯 하다. 더구나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였다. 말레이시아에서 NRIC 의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인 효과에 있어서 한국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NRIC 번호는 의무발급이지만, 12 세가 되었을 때 부모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한다. 번호 변경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거의 드문 일이다. MyKAD³⁸라고 불리는 ID 카드³⁹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전자지문을 포함하여 칩 안에 정보를 내장할 수 있는 기능을 결합한 전자주민증이다. 운전면허증, 전자지갑, 공인키(public key)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은행 계좌와 연동되고, 신용카드 기능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나 결제에 이용할 수도 있다. ID 카드를 발급할 때는 출생증명서(출생 신고할 때 발급)로 신원확인을 한다.
- 말레이시아에서는 온라인 영화티켓 예매나 바디샵의 소비자 포인트(customer royalty) 등 일상적으로 NRIC 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최근 데이터보호법이 통과되어 2014 년 시행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 민간영역에서의 수집, 보관, 제 3 자 제공 등이 일정하게 제한되게 되었다.
- NRIC 는 여권, 운전면허증, 은행계좌 개설, 교육 등 공식적인 모든 영역에서 이용된다. 리더기에 NRIC 카드를 넣으면 생체지문을 포함한 필요한 정보들이 읽히게 되고, 수집되게 된다.
- 조세, 복지, 건강 서비스 등을 위해서도 NRIC 번호가 이용된다.
- 학교 입학 시 12 세 이하는 출생증명서, 12 세 이상은 NRIC 를 이용한다.

³⁸ <http://en.wikipedia.org/wiki/MyKad>

³⁹ 말레이시아의 ID 카드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종교, 사진, 인종/종족, 생체지문 등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또한, 교통비 결제나 다른 결제에 사용 가능한 은행 계좌와 연계되거나 신용카드 기능이 부여될 수 있다.

- 모바일 가입 시에도 신원확인이 필요하며 NRIC 를 이용한다. 선불제 이용의 경우에도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범죄 등의 목적에 핸드폰이 이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2006 년 경에 도입되었다.⁴⁰
- 성인인증은 신용카드, 혹은 자기인증(self-declaration) 방식을 이용한다.

11) 필리핀

필리핀에는 그 자체로 의무적인 국민식별번호는 없다. 필리핀은 사회보장, 조세, 건강보험 등 서로 다른 영역에서 고유의 식별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효율성 증진을 이유로 서로 다른 식별번호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통일적 다목적번호(Unified Mutli-purpose ID, UMID) 시스템⁴¹을 구축하고 있다.

- 1990 년대 과거 행정부에서 국가적 국민식별번호 도입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고, 결국 대법원은 이 계획을 폐기시켰다. 그러나 그 이유는 절차적인 측면 때문이었는데, 즉 단지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과거 정부들은 서로 다른 번호 시스템(사회보장, 조세, 주거복지기금, 건강보험, 투표 등)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조치로 완화된 형태의 단일 식별번호를 만들려고 시도해왔다. 서로 다른 식별번호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UMID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UMID 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강하게 홍보하고 있다. 시범적 구현으로 모든 정부 공무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발급되고 있다. UMID 는 시민들이 요청했을 때, 혹은 특정 정부부처가 조직 내에서 그것을 구현했을 때 부여된다. 현재 정부 하에서 UMID 는 광범한 온라인 정부 서비스에 맞추어 재구축되고 있다. 새로운 통합 시민등록번호(CRN)가 논의되고 있으며, 원하는 사람은 정부 포털을 통해 일정한 보안조치(PKI)를 갖추고 전자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⁴⁰ <http://www.skmm.gov.my/skmmgovmy/files/attachments/Info-updated%204July06.pdf>

⁴¹ http://www.affordablecebu.com/load/philippine_government/how_to_apply_for_umid_unified_multi_purpose_id/5-1-0-15864

- 여권은 국가통계청(National Statistics Office)에서 발급한 유효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고, 국가조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승인을 통해 발급한다.⁴²
- 일정 연령의 필리핀인들은 조세식별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를 부여 받으며, 고용주는 TIN 을 수집한다.
- 사회복지, 주거, 건강보험을 위해 별개의 식별번호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필리핀건강보험기관(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HIC or PhilHealth)에서는 건강(PhilHealth)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UMID 로 통합되고 있다.
- 학교는 최소한 하나의 신분증을 요구하며, 통상 출생증명서가 이용된다. 학교에 입학하면 학생 ID 번호가 부여되고, 매 학기 혹은 매년 갱신된다.
- 금융기관은 최소 2 개의 정부발급 신분증 제출을 요구한다. 여권, 운전면허증, 사회보장증 등이 사용된다.
- 모바일 통신의 경우, 선불폰은 신원 확인을 하지 않으며, 누구나 매장에서 선불 SIM 을 살 수 있다. 후불제의 경우 통신사는 최소한 1~2 개의 정부발급 신분증 및 주소 확인을 위한 요금고지서(과거의 수도/전기 요금고지서, 케이블이나 신용카드 고지서 등)를 요구한다.
- 성인 인 증은 통상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다.

12) 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는 특정 연령이 되면 ID 카드⁴³를 신청하며, 이때 ID 카드 번호가 부여된다. ID 카드 자체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은행, 방문처, 출생증명(캄보디아에서는 출생증명을 늦게 하기도 한다.), 결혼증명, 여권 등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18 세 이상 성인들에게 필수적이다. ID 카드나 식별번호의 수집, 이용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 캄보디아에서는 일상생활의 신원확인을 위해 ID 카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각 기관이나 업체가 ID 카드의 번호를 수집하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⁴² <http://www.passport.com.ph/requirements>

⁴³ ID 카드에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신체적특성, 사진 등이 수록된다.

- 처음 ID 카드를 발급받을 때에는 가족등록부(family book)나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다. ID 카드를 분실할 경우 새 카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때 새 번호가 부여된다.
-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ID 카드 혹은 가족등록부 혹은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다.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ID 카드가 필요하다.
- 조세번호는 단체나 기업에게 부여되고, 단체나 기업이 피고용인의 소득세를 납부한다. 조세번호가 ID 카드번호와 연계되어 있지는 않다.
- 복지 서비스를 위한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ID 카드를 이용한다. 병원에서는 병원 고유의 환자 번호가 있으며 이는 ID 카드와 연동되지 않는다.
- 학교 입학 시에는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며, ID 카드 번호를 수집하지는 않는다.
- 금융기관에서는 신원확인을 위해 ID 카드나 여권을 사용한다.
- 모바일 서비스를 위해 선후불 관계없이 ID 카드로 신원확인을 해야 한다.

13) 콜롬비아

콜롬비아에서는 출생증명서, 신분카드, 신분증 등 나이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으며, 태어날 때부터 국민식별번호가 부여된다. 아직 내전 중인 콜롬비아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보안’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원 확인과 국민식별번호의 이용이 보안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 콜롬비아는 국민식별번호로 출생증명서와 신분카드(TARJETA DE IDENTIDAD), 시민증(CEDULA DE CIUDADANIA)을 사용한다. 이는 의무적으로 발급되는데, 태어나면 출생증명서가 발급되고, 7 살이 되면 출생증명서를 갖고 신분카드(TARJETA DE IDENTIDAD)를 발급받으며, 18 세가 되면 출생증명서를 갖고 신분카드를 반납한 뒤 시민증(CEDULA DE CIUDADANIA)을 발급받게 된다.⁴⁴ 과거에는 각 신분증의 번호가 달랐는데, 현재는 출생 시 부여되는 번호가 유지된다. 국민식별번호에 대한 수집 규제는 없지만, 공개에 대한 규제는 존재한다.
- 여권을 발급받을 때에는 해당 나이에 보유하고 있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여권 발급기관은 ID 번호를 수집한다. 여권에 여권번호와 함께 ID 번호가 표시된다.

⁴⁴ 콜롬비아 신분증은 이름, 생년월일, 성별, 신체적 특징, 사진, 지문(엄지손가락), 서명, 만료일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주소는 없음)

- 운전면허증 발급 시에도 시민증(CEDULA DE CIUDADANIA)이 필요하며, ID 번호를 수집한다.
- 조세 목적으로는 시민증과 연계된 별도의 납세자번호가 이용된다.
-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도 시민증이 항상 요구되며, 건강서비스 역시 마찬가지이다.
- 학교 입학 시에도 나이에 따른 신분증이 필요하며, 학교에서 ID 번호를 수집한다.
- 금융기관에서도 나이에 따른 신분증이 필요하며, ID 번호를 수집한다.
- 통신사는 선후불제 관계없이 신원 확인하고 ID 번호를 수집한다.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어 문의했을 때 신원 확인을 위해 묻는 질문 중의 하나가 ID 번호이다.
- 민간에서도 ID 번호를 수집한다. 건물에 들어갈 때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건물을 누가 출입했는지 기록한다. 콜롬비아는 아직 내전 중이며, 경비원, 차단막, ID 번호나 지문 등의 이용은 '시민 보안'을 위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ID 번호 사용은 아주 보편적이며 이는 보안을 위해 중요하게 취급된다. 물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콜롬비아에서는 시민들의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14)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국민식별번호는 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DNI)이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여러 사회영역에서 ID 카드에 의한 신원 확인과 DNI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별다른 법적 규제는 없으며, 거의 공공 정보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아르헨티나 내에서 DNI의 남용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고 있지 않다.

- DNI는 의무는 아니고 신청에 의해 발급받는데, 보통 출생 후 몇 주 후에 발급 신청을 한다. 가난한 사람들, 특히 오지에 사는 어린이들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발급을 받는다. DNI는 식별번호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며⁴⁵, 변경할 수 없다. DNI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규제는 없다. 발급 신청 시 출생증명서와 지문이 필요하다.⁴⁶
- 여권 발급 시에는 출생증명서와 ID 카드가 필요하며, DNI를 수집한다.
- 운전면허증 발급 시에도 ID 카드가 필요하며, DNI를 수집한다.

⁴⁵ http://en.wikipedia.org/wiki/National_identification_number#Argentina

⁴⁶ 신분증은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사진, 지문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 조세를 위해서는 납세자번호⁴⁷가 있는데, 납세자 번호는 ‘DNI+숫자’로 되어 있어 DNI와 연계되어 있다. 고용주는 납세자번호와 DNI를 수집한다.
- 복지서비스와 건강(의료) 서비스 역시 ID 카드로 신원 확인을 한다.
- 학교 입학 시 ID 카드와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며, 학교는 DNI를 수집한다.
- 금융기관 및 통신사 역시 ID 카드로 신원 확인을 하며, DNI를 수집한다. 민간 기업도 DNI를 수집할 수 있다.

15) 카메룬

카메룬에서는 신원 확인을 위한 국가신분증(National ID card)을 발급한다.⁴⁸ 국가신분증의 고유 번호가 있는지, 신분증을 갱신할 때 번호도 변경이 되는지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카메룬은 통상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국가신분증이 사용되며, 납세자번호와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목적별 번호체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국가신분증은 16세가 되면 신청에 의해 발급을 받게 되며, 카드 발급 시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다. 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면 재발급이 가능하며, 10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한다.
- 여권 발급 시에는 국가신분증, 결혼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부모승인이 필요하다. 여권 발급기관에서 신원확인을 한 후, 신분증 사본을 보관한다. 운전면허 발급 시에도 유사하다.
- 납세자 관리를 위해 납세자 번호(taxpayer number)가 사용되며, 이는 국가신분증과 연동된다.
-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부여되며, 국가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을 한다.
- 건강보험을 위한 건강보험번호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⁴⁷ 조세 목적으로 납세자식별고유코드(CUIT, Código Único de Identificación Tributaria, Unique Code for Taxpaying Identification)와 노동자식별고유코드(CUIL, Código Único de Identificación Laboral, Unique Code for Laboral Identification)가 존재한다.

⁴⁸ 신분증에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신체적 특징, 사진, 지문, 출생지, 직업, 부모의 이름 등의 정보가 수록된다.

- 학교에 입학할 경우의 신원확인용 출생증명서를 이용한다.
-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는 국가신분증과 재직증명서로 신원확인을 한다.
- 모바일 서비스 계약 시에는 선불, 후불 관계없이 국가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을 하며, 통신사는 사본을 보관한다.

16) 수단

수단에서는 태어날 때 의무적으로 ID 번호가(id number)가 부여되며, ID 번호는 모든 공공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ID 카드⁴⁹를 발급받을 때는 국적증명서(Nationality certificate), 출생증명서(birth day certificate), 친족의 ID 카드(first of kin ID card)가 필요하다.
- 여권발급 시 ID 카드로 신원을 확인하며, 여권 정보는 ID 번호와 연계되어 있다.
- 운전면허증 발급 시에도 ID 카드로 신원을 확인하며, 현재 운전면허 발급기관이 ID 번호를 수집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그렇게 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급여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회사 등록에 기반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고용주는 ID 번호를 수집한다.
- 금융기관 및 모바일 통신사 역시 ID 카드로 신원을 확인하고, ID 번호를 수집한다.
- 인터넷에서의 성인인증은 자기인증(self-declaration) 방식을 이용한다.

17) 우간다

우간다에서는 현재 국가적인 ID 카드 프로젝트(National ID Card Project)가 진행 중이다.⁵⁰ 2013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2015년 12월까지 18세 이상의 모든 자격 있는 우간다 시민들을 등록하고 이들에게 ID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식별번호 등록이 진행 중이나, 우간다에서는 아직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관련 규제도 없다.

⁴⁹ ID 카드에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사진, 지문 등의 정보가 수록된다.

⁵⁰ 공식명칭은 국가보안정보시스템 프로젝트(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project)이다.
<http://www.newvision.co.ug/mobile/Detail.aspx?NewsID=645335&CatID=4>

- 현재는 여권(National Passport)이 신분증으로 이용되는 듯 하다. 여권은 신청을 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마을신분증(village identification) 등 다른 신분증이 필요하다.
- 운전면허증 역시 마찬가지로, 여권, 피고용인 신분증(employer id), 출생증명서 등 다른 신분증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고 발급받는다.
- 조세를 위한 조세신분번호(Taxation Identity Number, TIN)가 존재하며, 고용주는 TIN 을 수집한다. 현재 발급되기 시작한 국가식별번호가 TIN 과 어떻게 연계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 입학 시에는 출생증명서 등 어떤 증명서라도 사용 가능하다.
- 금융기관에서는 여권, 운전면허증, 거주증명서(지방의회의 서신, 요금고지서), 재직증명서나 피고용인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신원 확인을 한다.
- 모바일 통신사 역시 신원확인을 요구한다.

18)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국민식별번호로 국가신분증(National Identity Document)의 ID 번호(ID number)가 쓰인다. 남아공 역시 납세자 번호가 있다는 점 외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ID 번호를 수집, 이용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신원 확인이 별로 없고, 필요할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한다고 한다.

- 출생할 때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ID 번호가 부여된다. 16 세에 신분증(ID document)⁵¹을 신청하는데, 신분증에는 ID 번호가 표시된다.⁵² 신분증은 투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발급, 기타 서비스 이용에 신분증이 필요하며, 은행에서부터 병원까지 신원확인에 통상적으로 이용된다.
-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분증과 ID 번호가 필요하다. 운전면허증에는 ID 번호가 표시되며, 여권이나 신분증이 없을 경우, 운전면허증이 신분증(photo ID)으로도 사용된다.

⁵¹ <http://www.home-affairs.gov.za:8087/index.php/identity-documents2>

⁵² 신분증은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사진, 지문 등의 정보가 수록된다.

- 조세를 위한 납세자번호(taxpayer number)가 있으며, 남아공 시민이 아닌 경우 ID 번호는 없지만 납세자번호가 있을 수 있다. 고용주는 납세자번호뿐만 아니라 ID 번호도 수집한다. 납세자번호를 받을 때 신분증이나 여권 사본을 제출한다.⁵³
- 복지 및 의료 서비스 역시 ID 번호를 이용한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건강보험 서비스 제공자가 조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입학 시에는 ID 번호나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를 이용한다. 학교는 부모의 ID 번호를 수집한다.
- 금융기관에서도 ID 번호(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를 수집한다.
- 모바일 통신사도 선후불제 관계없이 신원을 확인하며, ID 번호를 수집한다. ID 카드,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을 한다.

⁵³ <http://www.justlanded.com/english/South-Africa/South-Africa-Guide/Jobs/Tax-number>

3. 국가별 국민식별번호와 그 특성

앞서 2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세, 복지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혹은 시민과 거주자를 식별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식별번호를 운영하고 있다. 식별번호 부여의 목적과 대상, 국가적인 식별번호 관리 체계와 상호 관계, 식별번호의 이용 범위 등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국민식별번호(National Identification Number)인지 단일하게 규정하기는 힘들다. 또한, 국민식별번호가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식별번호가 의무적으로 발급되는 것보다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발급하는 것이, 식별번호 변경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허용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발급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 정보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각 국가의 국민식별번호를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식별번호의 존재여부

호주, 필리핀, 일본 등은 보편적인 국민식별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호주가 대표적인데, 80 년대에 국민식별번호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국민적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고, 대신 의료보장 카드(medicare card)가 도입되었다. 통상적인 신원 확인은 운전면허증을 이용한다. 필리핀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보편적인 국민식별번호는 없지만, 필리핀은 다양한 식별번호를 연계하기 위한 통일적 다목적번호(UMID)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고, 일본은 2016 년부터 공통번호제도(My Number)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원 확인을 위한 ID 번호를 부여하기는 하지만, 그 수집 및 이용범위를 제한하고 다른 사회 영역에서는 고유의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소위 목적별 번호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들도 사실상 보편적 국민식별번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모든 독일 거주민은 16 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ID 카드를 신청해야 하고, 이 카드의 번호가 국민식별번호라고 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아니다. 목적에 따라 납세자번호(the tax payer's account number), 건강보험카드번호(the health insurance card number), 사회보험신분카드번호(the social

insurance identity card number) 등이 활용되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 1991 년 헌법재판소가 보편적 개인식별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여전히 개인식별자(personal identifier)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사회보장식별코드(Social Security Identification Code), 조세식별코드(Tax Identification Code) 역시 사용되고 있으며, 각 식별자의 목적과 어떤 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지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정 목적의 번호를 국민식별번호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캐나다의 사회보험번호,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영국의 국가보험번호 등이 그러한데, 물론 이 번호가 수집, 이용되는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사회보험번호의 수집, 이용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는 그 사용범위가 넓은 편이다. 반면 영국은 미국에 비해 국가보험번호가 사용되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국민식별번호의 이용 범위가 제한적일수록, 각 영역별 번호체계가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체코, 루마니아, 수단, 우간다,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은 국민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상당히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범용 국민식별번호는 여러 나라에서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다. 1991 년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보편적 식별자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며, 포르투갈은 헌법에서 보편적 식별자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모든 시민에게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려는 시도가 의회에 의해서 거부된 바 있다. 한국에서도 여러 헌법학자들이 주민번호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⁵⁴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없음	호주, 필리핀, 일본(2016 년부터 공통번호 도입)
목적별 번호를 국민식별번호로 이용	캐나다, 미국, 영국
목적별 번호체계	독일, 헝가리
범용 국민식별번호 이용	한국, 체코, 루마니아, 수단, 우간다,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⁵⁴ 한상희, <주민등록제도, 그 헌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주민등록제도 50 년 비판과 대안 심포지엄 자료집 (2012.2.16)

2) 의무발급 여부

국민식별번호의 부여가 의무적인지, 아니면 선택적인지 역시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을 비롯해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콜롬비아 등은 모든 국민들에게 출생 시에 부여되며, 말레이시아, 독일 등은 특정 연령이 되면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캐나다, 캄보디아, 미국, 아르헨티나 등은 국민식별번호를 신청을 해서 부여 받지만, 사회 생활을 위해서는 발급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적인 국민식별번호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의무 발급	한국,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콜롬비아, 독일
신청에 의한 발급	캐나다, 캄보디아, 미국, 아르헨티나

3) 변경가능 여부

한국을 비롯하여 헝가리, 영국, 체코,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우간다,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국민식별번호의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식별번호는 아니지만, 독일의 납세자번호, 건강보험카드번호, 사회보험신분카드번호 등과 같은 목적별 번호도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신원도용을 당했을 때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변경을 허용한다. 카메룬, 캄보디아, 독일과 같이 카드를 분실했거나 재발급을 받을 경우 번호가 변경되는 국가도 있다.

변경 불가능	한국, 헝가리, 영국, 체코,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우간다, 아르헨티나
특별한 경우 변경가능	캐나다, 미국
재발급시 등 변경가능	카메룬, 캄보디아, 독일

4) 이용규제 여부

개인식별번호의 수집, 이용 범위에 대한 규제는 프라이버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캐나다는 사회보험번호를 국민식별번호로 사용하고 있는데, 애초의 목적인 캐나다 연금계획을 비롯하여, 소득세 납부, 은행, 재향군인수당 등 사회보험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16 개 영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법한 목적 없이 사회보험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민간영역 프라이버시법(PIPEDA) 위반이 된다. 보편적 개인식별번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헝가리 역시 사회보장식별코드, 조세식별코드, 개인식별자 등 3 개 주요 식별자에 대해 그 사용목적과 어떤 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민간업체가 국민식별번호를 이용,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하거나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영역에서도 개인식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이용, 처리할 수 있지만, 국민식별번호를 기록하거나 다른 데이터와 연결하는 것은 더욱 제한적이다. 일본에서는 2016 년부터 도입되는 공통번호제도(My number)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이 번호의 사용목적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영국 역시 국가보험번호는 고용, 조세, 연금 등 주로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한다. 미국에서는 사실상 국민식별번호로 이용되고 있는 사회보장번호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최근 메디케어(medicare) 서비스에서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미국회계감사원(GAO)이 명의도용 위험을 지적하며 사회보장번호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HHS) 역시 이에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사회영역별 개인식별번호 분석

2 장에서 각 국가별 상황을 정리하였다면, 4 장에서는 각 사회 영역별로 국가마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1) 여권 및 운전면허증 발급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신원 확인을 한다. 신원 확인을 위해서 출생증명서, 여권, 운전면허증 등 다양한 신분증이 활용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국민식별번호를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이 반드시 저장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신원 확인과 국민식별번호의 수집, 이용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신원 확인을 거친 후 각 발급기관에서의 수급자 관리는 여권번호나 운전면허증 번호 등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캐나다, 호주, 독일 등은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이 국민식별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

- 캐나다의 경우, 여권발급 시 출생증명서나 이민증명서를 통해 신원 확인을 하지만, 국민식별번호로 이용되는 사회보험번호(SIN)를 수집하지는 않는다. 프라이버시법 하에서 수집이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호주는 국민식별번호가 없다. 여권발급 시에는 출생증명서, 거주증명(서비스 고지서 등을 활용),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한다.
- 독일의 경우에는 여권을 발급할 때 통상 구 여권이나 ID 카드를 통해 신원 확인을 하며, 여권 번호는 여권 발급기관에 저장되지만 ID 카드 번호는 저장되지 않는다. 운전면허증 발급 시에도, 통상 ID 카드나 여권으로 신원 확인을 하지만, ID 카드번호는 저장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을 비롯하여, 헝가리, 미국,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은 발급기관에서 국민식별번호를 수집한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여권에 국민식별번호가 포함되기도 한다.

2) 조세

조세, 특히 소득세의 징수는 어느 국가의 정부에게나 필요한 일이다. 조세의 대상이 해당 국가의 국민에게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그 국가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도 납세자번호와 국민식별번호는 구분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식별번호와 별개로 납세자번호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많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헝가리, 호주, 독일, 필리핀 등에서는 국민식별번호와 분리된 납세자 번호를 가지고 있다.

- 헝가리의 경우, 조세 목적으로 조세식별코드를 이용하며, 시민에게 부여되는 조세식별코드와 별개로 기업체나 개인사업자를 위한 조세번호(tax number)가 존재한다. 조세식별코드는 국민식별번호와 연동되어 있지 않다. 고용주는 소득세 신고를 위해 피고용인의 조세식별코드를 이용한다.⁵⁵
- 별개의 국민식별번호가 없는 호주에서는 개인 및 기업을 위한 별개의 세금납부번호(tax file number)가 존재하며,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세금납부번호를 수집한다. 피고용인의 이름이 바뀌어도 세금납부번호는 변경되지 않는다. 기업이나 단체에는 호주사업번호(Australian Business Number)가 부여된다.
- 독일은 국민식별자로 ID 카드번호를 사용하지만, 조세를 위해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 "Steueridentifikationsnummer")를 부여한다. 이는 모든 개인 및 법인에 부여되는데, 2008년 법 개정 이후, 이 번호는 태어날 때 부여되고 평생 유효하며, 사후 20년 후에 삭제가 된다. 이 번호는 연방세무당국에 저장되고, 그 이용 및 처리는 금융 당국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법에 근거가 있거나 해당 행정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ID 카드 번호와는 연동되지 않는다. 고용주는 급여, 세금 및 사회보장비용을 처리를 위해, 납세자번호와 사회보장/보험번호를 저장한다고 한다.

별개의 납세자번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국민식별번호와 연동되어 있는 나라들도 있다. 카메룬,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이다.

⁵⁵ 그러나 현실에서 고용주는 사회보장식별코드와 개인식별자(헝가리의 국민식별번호)도 수집하고 있는데, 1996년 No.XX 법에 따라 세 개의 부문 식별자를 별개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주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캐나다의 경우 조세를 위해 전자신고번호(e-file number)를 부여 받는데, 이는 사회보험번호와 연결되어 있으며, 고용주는 전자신고번호가 아니라 사회보험번호를 수집한다고 한다.
- 콜롬비아도 별개의 납세자 번호가 있지만, 이는 국민식별번호인 시민증(CEDULA DE CIUDADANIA)과 연계되어 있다.
- 아르헨티나 역시 납세자 번호가 있으나, 이는 ‘국민식별번호+숫자’로 구성되어 국민식별번호와 연계되어 있으며, 고용주는 납세자번호와 국민식별번호를 모두 수집한다.
- 필리핀의 경우 별개의 납세자번호가 있지만, 통일다목적번호(UMID)를 통해 다양한 개인식별번호를 연동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국민식별번호를 납세자번호로 사용하거나 납세자번호 자체가 국민식별번호의 역할을 하는 나라들로써 미국, 영국, 체코,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등이 있다.

3) 복지

복지 서비스의 성격과 범위가 다양하고, 각 국가의 복지 수준이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각 복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식별번호가 부여되는 경우도 많다.

- 독일의 경우 공공건강보험번호, 법정연금보험번호 등 사회보장을 위해서도 다양한 번호가 활용된다.
- 캐나다의 경우에는 복지 서비스를 연방이나 지방정부가 관리하는데, 조세목적 외에는 사회보험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
- 헝가리의 경우, 복지서비스를 위한 신원 확인을 위해서 3개의 신분증(사회보장식별코드, 조세식별코드, 개인식별자) 중 하나가 사용되며,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가 조세와 연결되기 때문에 조세식별코드가 수집되고, 건강상태와 관련될 경우 사회보장식별코드도 요구된다. 그러나 국민식별번호인 개인식별자가 복지 서비스와 연계되지는 않는다.
- 호주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위한 별개의 식별번호가 있으며, 신원 확인은 요금고지서,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 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다.

- 미국은 복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연방차원에서 관리되는지, 주 차원에서 관리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 사회보장번호가 요구된다. 복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자신의 사회보장번호와는 다른 번호가 부여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배우자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배우자의 사회보장번호가 자신의 의료서비스 번호(medicare number)가 된다.
- 필리핀 역시 사회복지, 주거, 건강보험을 위해 별개의 식별번호가 부여된다.
- 일본도 각 복지시스템마다 별개의 번호를 부여하는데, 2016년부터 공통번호시스템(My number)이 도입되면 어떻게 될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반면, 한국을 비롯해서 체코, 말레이시아, 남아공, 콜롬비아 등은 국민식별번호를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4) 건강/의료

공적인 건강 혹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그 수혜자를 위한 식별번호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같이 공적인 건강보험 서비스가 수혜자의 수입 등과 연계되는 경우, 건강보험 관리기관이 조세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필요도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식별자를 매개로 연동할 것인가의 문제도 발생한다.

체코,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 등은 국민식별번호를 건강보험번호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한국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증번호가 있지만 이는 전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 약국, 건강보험기관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헝가리, 호주, 독일, 필리핀 등은 별개의 건강보험번호를 두고 있다.

- 캐나다는 각 지방정부에서 고유한 건강보험체계와 건강보험번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식별번호 역할을 하는 사회보험번호(SIN)와는 연동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은 조세정보와 연동되지 않으며, 조세기록은 최고의 기밀이 유지되는 정보이다.
- 헝가리의 경우, 병원에서는 사회보장식별코드를 사용하며, 이는 국민식별번호인 개인식별자와 연동되지 않는다. 저소득 계층을 위한 특별한 건강 서비스 제공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기관이 조세기록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호주에서는 모든 성인들이 의료카드(medicare card)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카드가 있으면 의료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아이들은 보통 엄마의 카드에 등록이 되며, 18세가 되면 자신의 카드를 갖게 되는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우편으로 배달이 되어온다. 이름이 바뀌어도 새 번호가 부여되지는 않는다. 의료카드의 번호는 다른 식별자와 연동되지 않는다.
- 독일의 경우, 공공건강보험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카드("elektronische Gesundheitskarte", eGK)가 사용되는데, 병원에서 이를 제시하면 보험가입자로 인정된다. 현재 강력한 전자식별관리(electronic identification management) 기능을 가진 새로운 버전의 ID 카드가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건강보험을 위해서는 이름과 주소가 요구되고, 신원증명서류(여권이나 ID 카드)가 요청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공자가 조세기록에 접근할 수는 없다. 다만, 수입과 관련된 정보들이 교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공공보험회사에 자신의 수입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대로 공공보험회사가 어떤 정보를 조세 당국에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 필리핀은 국민식별번호가 없고 건강보험기관(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HIC or PhilHealth)에서 건강 번호(PhilHealth)를 부여하는데, 이 역시 통일다목적번호(UMID)로 연동되어 있다.

미국은 병원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사회보장번호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별개의 건강보험번호가 필요할 수도 있다. 미국의 공적의료 서비스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서비스는 사회보장번호를 수집하고 있는데, 최근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다. 2012년 8월, 미국회계감사원(GAO) 보고서는 4800만 메디케어 수혜자가 ID 카드의 사회보장번호 때문에 명의도용 위험에 처해있다고 밝히며, 삭제를 권고하였다. 미국 보건복지부(HHS)도 이에 동의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직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⁵⁶

5) 금융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계좌를 개설할 때 신원 확인을 한다. 그리고 신원 확인 방법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국가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등 다양한 신분증이

⁵⁶ "GAO pushes for removal of Social Security numbers from Medicare IDs", FierceHealthIT, 2013.10.18 <http://www.fiercehealthit.com/story/gao-pushes-removal-social-security-numbers-medicare-ids/2013-10-18>

활용된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복사하여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금융기관이 국민식별번호를 기록할 필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독일에서는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를 개설할 때, 오프라인에서는 ID 카드나 여권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사본을 복사한다.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ID 카드의 온라인 인증(eID-online-function) 기능을 이용한다. 그러나 사기업이 ID 카드번호를 자동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조세 등을 위해 조세번호나 국민식별번호가 수집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이자가 발생하는 은행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사회보험번호(SIN)가 필요하다. 신용카드 업체의 경우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식별번호가 없는 호주의 경우에도 여권, 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원 확인을 한다. 그러나 이들이 식별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은행은 조세를 위해 조세파일번호(TFN)을 수집할 수도 있다. 은행과 세무당국 사이에 이에 기반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미국, 체코,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남아공, 수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도 금융기관이 국민식별번호를 수집한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신원 확인 목적인지, 아니면 조세 등의 타 기관과의 연동을 위한 것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6) 모바일 통신 서비스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신원 확인이나 국민식별번호의 수집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선불결제와 후불결제로 나눌 수 있는데, 후불제 서비스의 경우 신용도 확인이나 채권 추심을 위해 신원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수사나 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신원 확인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카메룬, 캄보디아, 캐나다, 헝가리, 일본,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우간다,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 많은 나라에서 선후불제 관계없이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 말레이시아, 남아공, 수단, 우간다,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신원 확인과 함께 이동통신사들이 국민식별번호를 수집하고 있다.⁵⁷

신원 확인을 하더라도 통신사가 반드시 국가식별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는 신원 확인을 하지만, 사회보장번호(SIN)을 수집하지는 않는다. 독일 역시 서비스 계약 시 신분증 카드 제시를 요구하기는 하지만, ID 카드 번호를 기록하지는 않는다. 영국도 통신사에서 국가보험번호(NIN)를 수집하지 않는다. 호주도 신원 확인은 하지만, 후불제의 경우 신용카드 정보만 수집한다.

후불제의 경우에는 신원 확인을 하지만, 선불제 서비스의 경우에는 하지 않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체코에서는 후불제의 경우 ID 카드로 신원 확인을 하지만, 선불제의 경우에는 신원 확인이 필요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필리핀도 누구나 신원 확인 없이 선불 SIM을 구입할 수 있다. 후불제의 경우 통신사는 최소한 1~2 개의 정부발급 신분증과 주소 확인을 위한 요금고지서(과거의 수도/전기 요금고지서, 케이블이나 신용카드 고지서 등)를 요구한다.

미국의 경우 후불제의 경우 신용조사를 위해 신원 확인을 하는데, 사회보장번호와 신분증(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통상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선불제의 경우, 혹은 많은 보증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하지 않다. 독일은 통신법에서 소비자 데이터의 정확성을 담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그 방법을 특정하지는 않고 있다. 온라인으로 신원 확인 없이 선불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한다. 루마니아는 후불제의 경우에는 ID 카드나 여권으로 신원 확인하고 국민식별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나, 선불폰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 선불폰의 경우에도 신원 확인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7) 성인인증

⁵⁷ 그러나, 국민식별번호를 수집한다는 답변이 통신사들이 국민식별번호를 수집, 저장하고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신분증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지, 단지 신원 확인을 한다는 것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온라인 상에서의 성인인증을 위해서는 스스로 본인이 성인인지 여부를 체크하는 자기인증(self-declaration)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 호주, 영국, 체코, 말레이시아, 독일, 수단, 일본 등이 그렇다. 신용카드와 같이 별개의 방법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과 같이 본인인증기관이 존재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각 국가별, 사회영역별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사회의 역사와 제도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번호 체계나 식별번호가 이용되는 범위나 방식 등이 다르고, 어떤 식별번호 체계의 사회적인 영향(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을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주민등록번호 체제를 좀 더 객관화하여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분석하는 목적은 단지 어떠한 방식이 더 보편적인가를 찾아내는데 있지 않다. 부분적인 측면만을 본다면,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식별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의무적으로 번호를 부여하거나, 혹은 번호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도 있다. 어떤 나라들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한국과 같이 국민식별번호를 상당히 범용적으로 쓰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우리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제도나 방식이 더 보편적인가 하는 것보다 특정한 국민식별번호 체계가 국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것이다.⁵⁸

앞의 분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민식별번호에 대한 국가별 차이는 각 사회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독일, 호주, 영국 등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저항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인식별 체제가 잘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사회에서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보편적 국민식별번호를 사용해온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을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호주와 같이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자체가 없는 나라들도 있다. 물론 이에 따른 불편이나 문제점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신원 확인이나 식별번호의 이용에

⁵⁸ 물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번호 체계의 효율성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포함하여 특정한 식별번호 체제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호주와 같은 나라에서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없이 어떻게 각 사회영역이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캐나다, 미국, 호주, 독일, 헝가리, 영국, 일본 등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식별번호 자체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식별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전산화가 되기 이전에 중복되지 않게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손쉬운 방식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의식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식별번호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셋째, 국민식별번호의 발급이 의무가 아니거나 변경을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다. 물론 원활한 사회 생활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이 국민식별번호를 발급받는 경우가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이는 종국적인 선택의 권한을 준다는 점에서 의무화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또한, 신분증 번호를 식별번호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통해 정기적으로 식별번호가 변경되거나 필요할 경우 번호를 변경해주기도 한다.

넷째, 선진국에서는 국민식별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특히 민간에서의 수집과 이용은 많은 나라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 독일이나 헝가리와 같이 목적별 번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비롯하여, 캐나다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국민식별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⁵⁹ 국민식별번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고유의 목적별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해당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체로 프라이버시권이 발전한 선진국에서는 국민식별번호를 보편적 식별자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영역별로 식별번호 체제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독일이나 헝가리, 영국 등이 목적별 식별번호 체제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독일 의회는 모든 국민에 대해 식별자를 부여하는 것은 기존의 법체제에 부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보편적 국민식별번호의 도입을 거부했으며,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1991년 보편적 식별자가 위헌이라고

⁵⁹ 2014년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으로써, 형식적으로 한국 역시 법령에 근거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를 허용하고 있는 법령이 1000여 개에 달한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법정주의가 큰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정했다. 이번 연구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포르투갈은 헌법에서 보편적 식별자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많은 헌법 학자들이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섯째, 사회 영역별 식별번호가 국민식별번호와 반드시 연동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민식별번호와 별개로 조세를 위한 납세자번호(혹은 조세식별번호)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상당히 많으며, 헝가리나 독일과 같이 국민식별번호와 아예 연동이 되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 캐나다나 독일과 같이 여권을 발급할 때에도 신원 확인은 하지만, 국민식별번호와 연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민식별번호를 통한 신원확인과 국민식별번호의 저장을 통한 연동은 구별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는 설문조사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국의 개인식별번호만을 조사했던 기존의 연구에 비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각 국가의 식별번호의 이용 현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향후에 각 국가마다의 고유한 맥락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여러 식별번호가 각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별첨자료 1> 설문지

Collection and use of national ID number:

--- a survey conducted by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itizens' Action Network,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onsumers Korea,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Open Net Korea)

Well before the advent of the Internet, many countries have had a system of national identification number to identify their nationals or residents for a variety of purposes such as taxation, social welfare services, issuance of passports or policing. In the age of the Internet and digitization of information, e-government system often makes use of the national ID number to 'link' many different databases holding information about one's dealings with various public sector services. While this is a practice design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e-government services, it may pose a serious threat to privacy and it can easily be abused to facilitate surveillance.

If, moreover, the national ID number is used not only for e-government services but also for private sector services such as financial services, then the risk of abuse becomes even more serious. As more and more services make use of the national ID number, the risk of data breach involving national ID number would increase and the consequence of breach can be devastating. South Korea is an example where national ID number has been collected and widely used not only by government departments but also by private sector service providers. National ID number is, as it were, a "key" to have access to all sorts of services -- public or private. An individual (data subject) does not have a clear idea about how much of the information regarding him/her can be inter-linked through the national ID number. The risk of unlawful surveillance and misuse of national ID number is high.

We,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 have argued that the risk of using national ID number in online as well as offline services needs to be carefully re-assessed. We believe that collection and use of the national ID number should be limited to very narrowly defined public services only. Public bodies and private entities should consider the risk of relying on a single personal ID number, which will inevitably have the consequence of accumulating personal data to an unacceptable level and increasing the risk of data breach. As far as possible, common and universal personal ID system, such as national ID, should be avoided.

We conduct the present survey in order to have an accurate picture of the extent to which national ID number is used in various sectors in different countries. We hope that our research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policy makers in many countries when they tackle the questions relating to identity management of their citizens.

We should be grateful if you could take the time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Should you have any further inquiries regarding this survey, please contact antiropy@gmail.com (Mr Byoungil Oh) or master@opennet.or.kr.

0. Something about you...

Your name:

Your email address:

Affiliation:

Where do you live (name of the country) :

I. National ID Number

In this survey, "national ID number" means one or more systems where the government assigns a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consisting of digits, letters or combination of any characters) to citizens and residents (including foreign residents) of the country.

1-1. What is the name of your national ID number? (If your country has more than one ID systems, please list the one which is most widely used. The next few questions are also about the most widely used national ID system in your country.)

1-2. Is your national ID number mandatory or optional?

() Mandatory. Everyone is assigned a unique ID. No need to apply for one.

() Optional. You need to apply to have the ID assigned to you.

1-3. When is the ID number assigned? (at birth, at a certain age, etc.)

1-4. Is it possible to change your ID number? If yes, under what circumstances can you apply to have a new ID number assigned to you?

1-5. If your government issues a national ID card (different from the passport), what kinds of information does the national ID card contain? If your government does not issue a national ID card (apart from passport), you may skip this question.

- name
- address
- date of birth
- gender (male, female)
- physical characteristics (eye color, height, etc.)
- photo
- finger prints
- Other:

1-6. Does your country regulate the collection and use of national ID number? For example, can anyone collect and use your national ID for the purpose of offering a service? Or is there a restriction as to who can collect and use your national ID?

1-7. When your ID card is issued, how is your identity verified?

II. National ID in public sector services

Passport

2-1. When you apply to have a passport issued to you, how is your identity verified? Do you need to have a national ID card or other ID card(s) before you apply to have a passport issued to you?

2-2. Does the issuer of passport collect your national ID number or other ID card(s) details?

Driving licence

2-3. When you apply to have a driving licence issued to you, how does the authority verify your identity? Do you need to have a national ID card or other ID card(s) before you apply for driving licence?

2-4. Does the issuer of driving licence collect your national ID number or other ID card(s) details?

E-government services

2-5. In order to have access to certain e-government services which require user identity verification, how is your identity verified?

Taxation

2-6. For taxation purposes, which ID is used to identify you? (for example, taxpayer number, National Insurance number, etc.)

2-7. If your ID for taxation is different from your national ID, is your national ID number 'linked' to your taxpayer number?

2-8. Does your employer collect your taxpayer number, national ID number or social security number or other ID number in connection with tax accounting?

Welfare services

2-9. In order to have access to welfare services (such as housing, childcare, income support, etc.), which ID is used to identify you? (for example, an ID which is specifically issued for welfare services, such as Social security number, National Insurance number, or national ID number etc)

2-10. In your country, is national ID number linked to any number for welfare services?

Health service

2-11. Which ID is used to identify you when you go to a hospital? (for example, health insurance number, etc)

2-12. In your country, is national ID number linked to health insurance number?

2-13. Is health service provider or health insurance authority allowed access to your taxation records or other database showing your income level?

III. National ID in non-governmental services

Education

3-1. Do schools (other than universities) verify identity of students when they enrol with the school? How is it done?

3-2. Do schools demand and collect student's or parent's national ID number, passport number, etc.?

3-3. When schools issue student ID card, how do they ascertain or verify student's identity?

Financial services

3-4. When you open a bank account or apply for a credit card, how do banks or credit card companies verify your identity?

3-5. Do banks and credit card companies collect customers' national ID number or passport number?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3-6. Are you required to identify yourself in order to have a mobile phone?

- Yes,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pre-paid (pay as you go) service or monthly contract.
- It depends. No need to identify yourself for pre-paid service.

3-7. Do mobile carriers collect your national ID number or any other ID numbers such as passport number, social security number, etc.?

3-8. For monthly contracts, how do mobile carriers verify your identity?

Online services

3-9. Are private sector service providers permitted to collect user's national ID number, passport number, social security number, taxpayer number, etc.?

Adult verification

3-10. For adult oriented online content, how do site operators verify user's age?

IV. General observations

4-1. How do you evaluate your country's situation regarding the use of national ID number in the context of online services?

4-2. What are your recommendation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safety and efficiency of online ID systems?

Thank you!

We are grateful to you for taking the time to respond. If you have any further comments or sugg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at antiropy@gmail.com (Mr Byoungil Oh) or master@opennet.or.kr

Do you wish to remain anonymous?

- Please do not disclose my identity and do not quote my answer in an attributable manner.
- I do not mind if my answers are quoted in an attributable manner.

<별첨자료 2> 설문답변

응답 1 - 카메룬

0. 비공개

1.

1-1. National identity card

1-2. Optional

1-3. at 16 years old

1-4. YES, if you lost your first one (it is a card) or if it has been destroyed for any reason. You hold an ID for 10 years after that you have to change..

1-5. Name, Address, date of birth, gender (male, female), physical characteristics (eye color, height, etc.), Photo, finger prints, place of birth, profession, names of parents

1-6. I don't know

1-7. Birth certificate

2.

2-1. YES, the ID card, the wedding certificate, an attestation from your employer if applicable, an authorization of your parents if you are aged under 18.

2-2. YES, you leave a certified copy of the different documents to the issuer

2-3. YES, your national ID card.

2-4. YES, you leave a certified copy of the national ID card to the issuer.

2-5. For civil servants, you have a civil servant number.

2-6. National ID card and taxpayer number

2-7. YES

2-8. YES

2-9. National ID card and social security number

2-10. NO

2-11. National ID card. Everyone doesn't have to get an health insurance.

2-12. NO

2-13. NO

3.

3-1. Using their birth certificate

3-2. YES

3-3. Birth certificate

3-4. National ID card, attestation from your employer

3-5.

3-6. YES

- 3-7. They collect a copy of the National ID card
- 3-8. National ID card
- 3-9. I don't know
- 3-10. I don't know

- 4.
- 4-1. No comments
- 4-2. No comments

응답 2 - 캄보디아

0.
Your name: CHIM Manavy
Your email address: manavy.2011@gmail.com
Affiliation: Open Institute
Where do you live (name of the country) : Cambodia

- 1.
- 1-1.
- 1-2. Optional
- 1-3. At a certain age when you register for an ID card. This ID card is very important for every citizen at age 18 and above. You need to produce it at the bank, at the places you visit, to register for birth certificate (birth certificate in Cambodia can be registered late), marriage certificate, passport, etc
- 1-4. I think when you lost your ID card, you can re-register. This time I think with the new ID card your ID number also will get the new one
- 1-5. name, address, date of birth, gender (male, female), physical characteristics (eye color, height, etc.), photo
- 1-6. Rarely happen
- 1-7. Local authority will based on family book or birth certificate.

- 2.
- 2-1. Need ID card or family book or birth certificate
- 2-2. NO
- 2-3. ID card
- 2-4. They need ID card, but I am not sure if the collect number of ID card or they need information in the ID card such as name, age, sex, DOB, POB, etc.
- 2-5. Not available for the public yet
- 2-6. Tax payer number in the name of my organisation (we pay tax on salary all together with all staff)
- 2-7. NO
- 2-8. collect only taxpayer number
- 2-9. ID card

2-10. NO

2-11. Patient ID number given by the hospital

2-12. NO

2-13. NO

3.

3-1. They need birth certificate

3-2. NO

3-3. Birth certificate.

3-4. ID card or passport

3-5. They collect ID card, but I am not sure if they collect ID card number or they collect information in the iD card such as name, DOB, POB, sex, etc

3-6. Yes, I did

3-7. They collect ID card, but I am not sure if they collect ID card number or they collect information in the iD card such as name, DOB, POB, sex, etc

3-8. I don't know

3-9. I don't know

3-10. I don't know

4.

4-1. Still very poor

4-2. Protect personal data.

응답 3 - 캐나다(1)

0.

Your name: Stephanie Perrin

Your email address: stephanie.perrin@mail.utoronto.ca

Affiliation: University of Toronto PhD candidate (former Government of Canada public servant)

Where do you live (name of the country) : Canada

1.

1-1. Social Insurance Number (SIN)

1-2. Optional. The number is mandatory on all interest bearing bank accounts, for tax purposes, and for pension and social insurance benefits.

1-3. Parents may apply for children at birth, or at any age.

1-4. In cases of Identity theft, a new number will be granted, but the old number is never retired as long as it is active

1-5. name : YES / address : NO, ON THE FILE NOT ON THE CARD / date of birth : ON THE FILE, NOT ON THE CARD / gender (male, female) : NO / physical characteristics (eye color, height, etc.): NO / photo: NO / finger prints : NO

1-6. The SIN number is for government use only. However, it is used by employers because they have to collect 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for the government, and often it is therefore used as a file locator. It is an offence under the private sector privacy legislation (PIPEDA) to collect it without a valid purpose.

1-7. Identity documents such as birth certificate, immigration documents, are sent or brought in to Service Canada, who manage the system. For further information see: <http://www.servicecanada.gc.ca/eng/sc/sin/>

2.

2-1. NO, you are asked for a birth certificate or immigration documents. The social insurance number is not required.

2-2.

2-3. When you apply for a driving licence, you simply fill out an application form. It is managed provincially, not federally. You have to pass a test, or have a valid licence from another province or jurisdiction. The SIN number is not collected, neither is a passport. They are not permitted under privacy laws to collect this information.

2-4.

2-5. This depends on the service.

2-6. For taxation, you are sent an e-file number. Your tax filing is related to your SIN number

2-7. Yes see above.

2-8. Your employer collects your SIN number but not your e-file number.

2-9. Welfare is administered provincially or municipally, they do not collect the SIN number except for tax purpose

2-10. I am not aware of numbers for welfare services. There may be a case file number.

2-11. Each province runs its own health insurance scheme, and manages a health insurance number. Attached are the application forms for the smallest province, PEI, and the Largest, Ontario. See

<http://www.forms.ssb.gov.on.ca/mbs/ssb/forms/ssbforms.nsf/FormDetail?openform&ENV=WWE&NO=014-0265-82> for a sample system.

2-12. No

2-13. No. Tax records are granted the highest level of confidentiality. Welfare programs have information sharing programs with the national pension and disability service, for coordination of benefits.

3.

3-1. This may vary, often they use the birth certificate to verify age.

3-2. No

3-3. Based on enrollment information, ID cards are not involved.

3-4. SIN is required for interest bearing accounts. Credit card companies ask for it but it is optional. they use it to do credit checks, with the Credit rating services (Equifax, Transunion)

3-5. Never the passport number.

3-6. Yes, Not sure how easy it is to get pre-paid services in Canada, you do have to identify yourself for a phone service, but not give your SIN.

3-7. They do not collect SIN or passport number, driver's licence is a favorite form of ID.

3-8. Driver's licence or other picture ID such as a health card, student ID card, etc.

3-9. No

3-10. Dont know.

4.

4-1. Systems are not great at the moment, there is a lot of reliance on credit cards and drivers licences.

4-2. We should be using secure anonymous credentials, to protect against ID theft and misuse of data.

응답 4 - 캐나다(2)

0. 비공개

1.

1-1. Social Insurance Number

1-2. Optional.

1-3. When one has official status in the country as a worker or student.

1-4. I don't know.

1-5. Just the number is displayed on the card, no other identifying information. They have recently phased out the card entirely. People are asked to write their number on paper and keep it somewhere secure.

1-6. There are restrictions. Only official institutions like schools or banks may ask for it.

1-7. Passport or birth certificate

2.

2-1. No. Identity for passport is verified by birth certificate.

2-2. No

2-3. No. Drivers Licence identity is verified by passport or birth certificate.

2-4. No

2-5. To file taxes online, one must use one's ID number.

2-6. Social insurance number, national id

2-7.

2-8. Yes, they collect national ID number or social insurance number

2-9. I don't know

2-10. I don't know

2-11. Health insurance number

2-12. No

2-13. No.

3.

3-1. Yes, it is done with the national ID, or social insurance number

- 3-2. Yes, the student's.
- 3-3. I don't know
- 3-4. Social insurance number and passport
- 3-5. Yes
- 3-6. No
- 3-7. No
- 3-8. Credit card and picture ID of any kind
- 3-9. No
- 3-10. I don't know.

4.

4-1. Very positive. Though the Canadian government's site lost information due to the Heartbleed vulnerability just weeks before tax collection ended for 2014.

4-2. ID systems should be used for government business only. Banks should not even be allowed to identify people with their national IDs.

응답 5 - 헝가리

0.

Your name: Dr. Ivan Szekely

Your email address: szekelyi@ceu.hu

Affiliation: Social informatist.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Open Society Archives at Central European University, and Associate Professor at the Budapest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conomics. Former Chief Counsellor of the 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Data Protect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Where do you live (name of the country) : Hungary

1.

1-1. Formerly, as universal identifier: "Personal identification Code", since 1996 as sectoral identifier (the same set of numbers): "Personal Identifier"

1-2. Mandatory

1-3. At birth, by the central population register, informed by the birth registry.

1-4. No. (Only in exceptional cases when for technical reasons the same code has been erroneously assigned to two or more persons.)

1-5. name, date of birth, gender (male, female), photo, Place of birth, Mother's name, Nationality, Signature / Note: the national ID card does not contain the Personal Identifier, only a unique number of the card. There exists a separate card, which contains the Personal Identifier, which has a much more limited sphere of use than that of the ID card.

Identity can be proved by three official documents: the ID card, the driver's license card, and the passport.

1-6.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15/1991 declared the universal identifier unconstitutional. The newly democratic Constitution (until it had been replaced by a "Basic Act" in 2011) contained the explicit ban of a universal identifier.

Law No. XX of 1996 (still in force) defined the three main sectoral identification codes (Social Security Identification Code, Tax Identification Code and the Personal Identifier) together with the purposes and cases for which certain organizations are allowed to use these codes. Service providers in the private sector are not allowed to use the Personal Identifier.

1-7. Official birth certificate, official marriage certificate, personal presence, signature.

2.

2-1. Personal presence, a document proving your identity (ID card, driver's license card, or a valid passport), in the lack of such documents official birth certificate, official marriage certificate. Typically the ID card is required plus the separate card containing the Personal Identifier, plus the card proving your permanent address (this is physically the same card containing the Personal Identifier, the official document proving your permanent address is on the back of this card)

2-2. YES

2-3. The ID card or the passport, plus the Personal Identifier+Address card should be shown.

2-4. YES

2-5. First you need to go personally to the local authority where you have to show one of the three documents officially proving your identity (typically the ID card), then you receive a unique username and password which you need to activate electronically. Your identity data are recorded. – Alternative possibility: if you have a qualified electronic signature, you can use it for online registering.

2-6. The Tax Identification Code

Note: There exists a "Tax Number" for business entities (including individual entrepreneur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Tax Identification Code issued for citizens.

2-7. NO

2-8. The employer may use the Tax Identification Code only for taxation purposes. In practice, employers register all the three sectoral identifiers for the corresponding purposes. Law No. XX of 1996 stipulates that the three sectoral identifiers should be processed separately, however, the employers' administration generally regard this provision as practically unobservable.

2-9. One of the three identity-proving documents should be used, plus – since most welfare services have connection with taxation – the Tax Identification Code. In case the welfare service is based on your health status, the Social Security Identification Code may also be required

2-10. NO

2-11. The Social Security Identification Code

2-12. NO

2-13. As a main rule, no – only if you apply for a special health service for low income people.

3.

3-1. The card containing the Personal Identifier and the permanent address of the student should be presented. In case of underage students the same documents of their parents are also required

3-2. Yes, see above.

3-3. Student cards are administered centrally. Students first have to get their unique National Unified Card System (NEK) identifier. For this purpose they have to visit the local authorities, show one of their three identity-proving documents and the card with their permanent address.

3-4. One of the three identity-proving documents should be shown, plus the official card with your address, plus your signature.

3-5. They are not allowed to collect the Personal Identifier; however, depending on which of the three identity-proving official documents you use, they record that number

3-6. Yes,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pre-paid (pay as you go) service or monthly contract.

3-7. They register the number of the official identity-proving document (e.g. passport) which the customer chooses, however, they are not allowed to register the Personal Identifier.

3-8. When making the contract, you need to show one of the three official identity-proving documents, the permanent address card, plus – as an additional guarantee against fraud – one of the remaining identity-proving documents or the tax identification card, or the social security card or a banking card.

3-9. NO

3-10. By self-declaration (mostly formal)

4.

4-1. The national ID number (the Personal Identifier) is practically not used in the context of online services. In case of e-government services it may be used for preliminary identification in order to issue an account.

The decentralized and function-based sectoral ID system works well, the connections between the three domains are regulated by law.

4-2. I recommend a sectoral approach in the state sector, with control of inter-domain connections. In the private sector I recommend the use of the so-called "user-centric identity management systems". Both solutions limit the power of the service provider (in the state sector it limits the control of state offices over the citizens, in the private sector it limits the profiling of the user and the maximizing of the financial profit), however, these solutions are more secure than the centralized systems, and reflect better the principles of a constitutional democracy.

응답 6 - 호주(1)

0.

Your name: Ian Peter

Your email address: ian.peter@ianpeter.com

Affiliation:

Where do you live (name of the country) : Australia

1.

1-1. There is no system in Australia. Drivers licences are most commonly used for identification of adults

1-2.

1-3.

- 1-4.
- 1-5.
- 1-6.
- 1-7.

2.

2-1. No national ID card. Photos need to be certified by Justice of Peace and Birth Certificate produced

2-2.

2-3. Various documents can be used for verification, to collect "points". These include passports, rates statements for households, credit cards, bank statements, social security documents etc.

2-4.No

2-5. Not very well

2-6. Tax file number for individuals and also for separate corporate identities

2-7. N/A

2-8. Tax file number

2-9. Special ID for social security services

2-10. No

2-11. Everyone has a national medicare card

2-12. N/A

2-13. No

3.

3-1. Not sure

3-2. No

3-3. Various checks at enrolment process

3-4. "Points" system – including passport, birth certificate, other documents

3-5. No

3-6. No

3-7. No

3-8. As long as they have a credit card detail (and a good credit history) they don't seem to care

3-9. No

3-10. They don't. If person says there are over 18 that is enough

4.

4-1. No need for national ID.The concept is unpopular

4-2. Depends on circumstances

응답 7 - 호주(2)

0.

Your name: Daemon Singer

Your email address: dsinger@efa.org.au

Affiliation: 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

Where do you live (name of the country) : Australia

1.

1-1. Australia has no “formalised” National ID number. There were moves afoot in the 80’s to introduce one, but it was overwhelmingly rejected by the population.

As an alternative to the National ID system, the “Medicare Card” was introduced which every Australian has, and is often thought of as a National ID number. At this point it carries no personal details on the card itself, though it is being worked as a part-player in a National eHealth system, which would have the card embedded with medical information, at the request of the holder of the card.

If the nature of the survey is to assume a card, I will use the Medicare Card as the basis of my answers.

1-2. Every adult is issued with a medicare card and since most health care is free, using it, most people do use one. Children are listed on the mother’s card usually, and get their own when they are 18 years old and are removed from their mother’s (card). The card is not applied for, it just turns up in the mail.

Citizens also have a Tax File Number, which again, stays with them, and the name changes, a new number is not issued.

1-3.

1-4. No it can’t be changed and if a person changes their name, the name is changed on the card, they are not issued with a new number.

1-5.

1-6. The collection and use of the Tax File Number (TFN) is strictly regulated, and the privacy act is used to control the collection of the number.

1-7. In the case of the Medicare card, there are no requirements to check ID, it is just sent out to the person who requires it, either because it runs out of time (limited life due to card failure) or in the case of a young person, on their 18th birthday. The birthdates of everyone on the card are known. The card has a life expectancy of 5 years.

In the case of the TFN, identity is checked by the outlet where you are applying, such as a post office. (<https://www.ato.gov.au/Individuals/Tax-file-number/Applying-for-a-TFN/Individuals-%28Australian-residents-for-tax-purposes%29/>) Documents acceptable are listed here(https://www.ato.gov.au/Individuals/Ind/Apply-for-a-TFN-on-the-web/?anchor=Proof_of_identity#Proof_of_identity)

2.

2-1. Applying for a passport requires 3 basic documents. A birth certificate, proof of dwelling (a service or utilities account), foreign passport showing correct immigration status, a state issued photo id (drivers licence for example). A young person may use a school ID card.

2-2. No, though is a medicare card is used as part of the ID then it is collected.

2-3. No. Generally the first licence will require a birth certificate, a proof of dwelling from a utility provider, and occasionally a letter of introduction from a licence holder, attending the registry with an applicant, will also suffice.

2-4. No

- 2-5. Application made online, with multiple forms of documentary evidence of prior interaction with a government department. Scanned documents are sometimes used.
- 2-6. Tax File Number for individuals. Australian Business Number for organisations and entities.
- 2-7. This question doesn't apply
- 2-8. TFN only and it isn't normally stored in an accessible format.
- 2-9. Depending on the authority. They will utilise whatever documents they can get to sort you out. Includes bills, licence, medicare card, passport etc
- 2-10. Doesn't apply
- 2-11. Medicare card
- 2-12. No, not automatically
- 2-13. No

3.

- 3-1. Parental forms generally, but may ask for birth certificate and proof of residence.
- 3-2. No
- 3-3. On enrolment parents details will be taken but not linked to a national number process.
- 3-4. Driver licence, medicare card, passport and proof of dwelling.
- 3-5. No
- 3-6. Yes
- 3-7. Only drivers licence generally, or whatever proof they have used, but generally require photo ID.
- 3-8. Only drivers licence generally, or whatever proof they have used
- 3-9. No
- 3-10. Not applicable here as anyone wanting to host such things would do it elsewhere due to the ridiculous costs of Australian service provision. If they were going to host here and adhere to some form of age verification, they use a "certified over 18" button, where the user advises they are over 18, but they cannot verify this. It is taken on the word of the applicant.

4.

- 4-1. Not applicable
- 4-2. The biggest single danger in the use of an ID card is the misuse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on the ID card, by unscrupulous people in the community (businesses for example) as well as misuse of the data for unintended purposes by government.
Privacy is the last thing citizens actually own, and have the ability to have some level of control over by maintaining the right of refusal to advise their personal details to organisations without a clear reason have such details.
Countries with ID cards like Thailand are one of the places where it is so easy to create/use identification which is false, so identity theft then becomes an issue. This is true in that country particularly, using passports of foreigners, though the reasonably secure new identity card appears to have helped this substantially.

응답 8 - 미국

0.

Your name: Deborah Brown

Your email address: deborah@apc.org

Affiliation: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

Where do you live (name of the country) : United States

1.

1-1. Social security number

1-2. Mandatory, It's actually not very clear that having a social security number is legally mandatory, but you do need one if you want to receive income of any kind, and receive many important services. Parents need to apply for their children, it's not automatically assigned

1-3. Soon after birth.

1-4. Yes, if you've been a victim of identity fraud, feel that your life is under threat, for religious or cultural reasons, but I think it's fairly uncommon.

1-5. In the US, there is no national ID card other than the social security card (which has no photo) and passport. We use drivers' licenses or state ID (for non-drivers) for the same purposes a national ID would be used, but those are regulated at the state level.

1-6. As far as I know, the collection and use of the social security number is not regulated, and individuals can refuse to give it to companies and services, but they will often be denied those services.

1-7. It differs slightly depending on whether you're a child or adult, whether it's an original application or for a replacement, and your citizenship. Here's the link with the relevant information.

2.

2-1. You must show proof of citizenship and proof of identification. You don't need to show your social security card, but you do need to provide the number. More info here: <http://travel.state.gov/content/passports/english/passports/new.html#step3>

2-2. You only need to show the number (not the card itself) only as far as I can tell.

2-3. Licenses are regulated at the state level so it might depend. In NY for example, you need to provide your social security card, but there are some exceptions: <http://dmv.ny.gov/node/63>

2-4. Yes, in NY and would suspect in most states.

2-5. For federal services you would use your social security number. For state or local services you might use the number on you drivers license or state id.

2-6. As a tax payer you would use your social security number. If you are self employed or run a small business there is a different tax id number.

2-7. For individuals, they are the same.

2-8. Yes

2-9. I think it depends on the service, and also whether it's administered/regulated at the national or state level, but usually your social security number would be requested.

2-10. I think you need a social security number to apply for welfare and other benefits, but you may be assigned a separate number for those services. For Medicare for example, if you start receiving benefits from your spouse, your medicare number will be your spouse's social security number.

2-11. You may give your social security number for identification purposes, but you need a separate health insurance number (unless you are already on medicare - for retirees- which is the case mentioned above).

2-12. I'm actually not sure, since things are changing now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ffordable Care Act (Obamacare). When it was completely privatized health insurance was not linked to the SSN, and even now you wouldn't use your SSN for health insurance. But now under Obamacare your SSN may be used to determine your eligibility and how much you pay.

2-13. Again, things are changing under Obamacare. You have to enter your income and some information about your taxes to determine what you pay (if you get a rebate) and there's an option to allow the authority to access it for the following years directly or to provide the necessary information manually.

3.

3-1. They ask for this information, but I think you have the right to not provide it. It may depend also on whether the school is public or private.

3-2. Same answer as above.

3-3. I think through your birth certificate, but once you're enrolled in school, I don't thin there is a separate process for proving identity to get a student ID card.

3-4. They usually request your SSN.

3-5. Yes.

3-6. Yes, usually as part of a credit check when you want to sign a contract with the mobile company. I think if you're willing to pay a large deposit you wouldn't need to provide the SSN. And for pre-paid services they're not usually required.

3-7. Same answer as above.

3-8. Usually they would ask for your SSN and maybe a photo ID like a drivers license or passport. I'm not sure that this is uniform across companies.

3-9. Yes. You can refuse to give the SSN but you may be denied the service.

3-10. To be honest, I don't know.

4.

4-1. In my opinion it is requested far too much and opens the risk to data breaches. I think there are ways around giving the SSN, but that takes more time and is not efficient.

4-2. The SSN should only be requested when absolutely necessary. Perhaps other forms of ID that are not linked to such sensitive information, like your drivers license could be used more.

응답 9 - 영국

0.

Your name: Howard Lane

Your email address: howard@gn.apc.org

Affiliation: GreenNet

Where do you live (name of the country) : UK

1.
 - 1-1. National Insurance Number
 - 1-2. Mandatory
 - 1-3. Shortly before 16th birthday, in most cases, or when arriving in the country and registering for work.
 - 1-4. If a temporary number is issued it can be changed, but otherwise no.
 - 1-5.
 - 1-6. It is only used by government agencies such as employment, taxation, pensions
 - 1-7. Using birth registration records. There are "Registry Offices" that register all births, deaths and marriages, not in hospitals. Parents have to register the birth of a child within 42 days to get the birth certificate.

2.
 - 2-1. With a photograph signed and validated by another person, as well as birth or adoption certificate and proof of parentage if born after 1983 (e.g. parent's birth certificate or passport or adoption certificate), all original documents.
 - 2-2. No
 - 2-3. You need to supply proof of identity e.g. passport, as well as proof of residence and age.
 - 2-4. Yes
 - 2-5.
 - 2-6. For self-employed individuals, both National Insurance Number (NIN) and Unique Tax Reference (UTR). For those not self-employed, NIN only
 - 2-7. no
 - 2-8. yes
 - 2-9. Government agencies will issue their own reference numbers for welfare and benefits. The NIN is the only nationally used ID number that can be used to prove identity
 - 2-10. In most cases yes.
 - 2-11. National Health Service (NHS) number
 - 2-12. It can be but not necessarily
 - 2-13. In some cases where care is means tested for elderly care, yes

3.
 - 3-1. yes but I don't have access to this information, sorry. I don't think there is a national system.
 - 3-2. Not as far as I know
 - 3-3. They require photographs to issue student cards.
 - 3-4. Passport seen and copied. Passport is the easiest, but otherwise a driving licence or other form of ID and proof of residential address.
 - 3-5. Passport number
 - 3-6.
 - 3-7. No
 - 3-8. Address and date of birth. It's easy for fraudsters to use stolen identity information, but I don't know how they verify dates of birth. It could be done using the Electoral Roll (list of voters) or Tax records with Revenue and Customs (HMRC), but not everyone is listed on these.

3-9. Yes. You have to give your National Insurance Number (NIN) to an employer so they can inform HMRC, or to the Benefit Agency to get unemployment benefit. If you don't have one they will create a temporary one. You don't have to give it to other organisations, but it is not illegal for them to ask for it.

3-10. I don't think there is a verification process, only a user declaration

4.

4-1. The country is attempting to link databases of personal data but this has not yet been approved.

4-2.

응답 10 - 체코

0.

Your name: Jan Malik (Honza)

Your email address:honza.malik@ecn.cz

Affiliation:Econnect

Where do you live (name of the country) :Czech Republic

1.

1-1. Birth Number (Rodné číslo)

1-2. Mandatory

1-3. Birth

1-4. No

1-5. name, address, date of birth, gender (male, female), photo, Birth Number (see above), Signature, Expiration date, ID of the document (different from birth number), which could be used as ID, Personal state (married, ...)

1-6. You have to register your organization if you want to collect such data and define the purpose, why you want to.

1-7. Do not know.

2.

2-1. Yes

2-2. It is state, so probably yes.

2-3. Yes - national ID card

2-4. It is state police, who issues it, so yes, they have your identity data.

2-5. National ID card

2-6. Birth Number for employees and Company ID you you run your own bussines.

2-7. For employees you use Birth number directly, for companies the company ID is connected to your Birth Number so yes, it is connected

2-8. Yes, I think so.

2-9. Birth Number

2-10. It is the same

- 2-11. Birth Number
- 2-12. It is the same
- 2-13. No

3.

3-1. By Birth Number, I think.

3-2. Probably not

3-3. Not sure, how. The ID card is required after 15 years of age, so after this you can use the ID card. Before your parents have to identify you.

3-4. ID card

3-5. Yes, I think so.

3-6. It depends. No need to identify yourself for pre-paid service.

3-7. Probably yes.

3-8. ID card.

3-9. You have to register your organization if you want to collect such data and define the purpose, why you want to. You need the permission to collect it.

3-10. I think they just ask on page - no verification - but it is worldwide.

4.

4-1. We do not use National ID too much for online content - you have login and password. Only a few online services need your national ID (banks, Mobile companies, ... see above) but even in those cases you do not use it as login.

4-2. Not sure.

응답 11 - 말레이시아

0.

Your name: Jac smk

Your email address: jac@apcwomen.org

Affiliation: APC

Where do you live (name of the country) : Malaysia

1.

1-1. NRIC (National Registration Identity Card) Number

1-2. Mandatory. But it still needs to be applied for when a child turns 12, together with her/his parents/guardians

1-3. 12 years old

1-4. Very very unlikely. I want to say impossible, but not 100% sure. You can apply to change some particulars in the ID system (e.g. religion, and in extremely exceptional circumstances, gender. Gender is reflected by the middle 2 numbers, which is why I think this might be possible, but am not 100% sure)

1-5. Name, Address, Birthdate, Gender, Religion, Photograph, Race/Ethnicity, Biometric fingerprint, Photograph. Can also be linked to bank account and be loaded up with credit to be used for public transportation and other transactions.

1-6. It is very common for people to request for ID number for any kind of services, including purchasing cinema tickets online, customer loyalty for Bodyshop etc. We have a recently passed Data Protection Act that sets some limitations to private sector on data collection/retention and sharing, which came into force this year.

1-7. Birth certificate (which is issued when birth is registered)

2.

2-1. Yes, NRIC is needed for everything official. Including passport, driving licence, applying bank account, education, etc.

2-2. The card is inserted into a reader, and every data in the card, including biometric fingerprint, is collected (unsure about cash services)

2-3. Yes. See above.

2-4. See above.

2-5. Everything requires the use of the NRIC for identity verification.

2-6. NRIC number. And there will be an account number for each person. But primary verification is always NRIC.

2-7. Yes and yes.

2-8. Yes and yes.

2-9. NRIC.

2-10.

2-11. NRIC

2-12. Yes

2-13. No

3.

3-1. Under 12, birth certificate. Over 12, NRIC.

3-2. Unsure.

3-3. As above (3-1)

3-4. NRIC

3-5. Yes

3-6. Yes. More information: <http://www.skmm.gov.my/skmmgovmy/files/attachments/Info-updated%204July06.pdf>

3-7. Mainly NRIC. If you don't have NRIC, then passport number.

3-8. NRIC.

3-9. Yes

3-10. Credit card, or one click agreement.

4.

4-1. Before the data protection act, it was very broadly used, and has become a matter of norm to collect this information from any for the purposes of delivering any kind of service, whether public or private. Now, it remains to be seen if the act will regulate this a little bit, leaning

towards protection of privacy. But it is problematic, has been subjected to multiple forms of abuse, and disproportionately impacts on those who are already socially vulnerable (rural, poor, illiterate etc)

4-2. Much stricter control over who can have access to NRIC card, requirements for collecting this, allowing citizens to also change their particulars and correct them as identity changes.

응답 12 - 독일(1)

0.

Your name : Anne Roth

Your email address: anne@tacticaltech.org

Affiliation: : Digitale Gesellschaft e.V. / Tactical Technology Collective (less relevant in this case)

<https://digitalegesellschaft.de/>

Your name: Jan

Your email address: jan@digitalegesellschaft.de

Affiliation: Digitale Gesellschaft e.V.

Where do you live (name of the country) : Germany

1.

1-1. Germany has a mandatory ID card, the 'Personalausweis' which also has a unique number. The regulatory environment was largely revised recently, leading to the introduction of the "Neuer Personalausweis" (i.e. "New ID-Card", in the following: nPA) in 2010. This card supports a number of new technical features, included some local storage capacity and some cryptographic functions, as well as wireless communication based on RFID, described further down below.

The nPA also has a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which relates to the specific document, thus a new one is assigned whenever a new nPA is issued.

There are numerous additional government issued ID-cards and -numbers. Most importantly, there is the Tax Identification Number which is assigned at birth - since 2007 - and supposed to be consistent throughout life. Health insurers also provide an identification card, which also is currently being rolled out in a new version, with stronger support for electronic identification (management), ie. it also holds individual data. Similar to some of the features of the nPA there is other identification Documents such as the Passport, and documents for non-residents.

However, as requested, all remarks below relate to the nPA, unless otherwise noted.

References: https://en.wikipedia.org/wiki/German_identity_card

1-2. Mandatory. The obligation to own an nPA (or its predecessor) is regulated in the "Personalausweisgesetz" (PAuswG), specifically in § 1 para 1, 1st sentence thereof.

Reference: <http://www.gesetze-im-internet.de/pauswg/>

1-3. Every citizen has to have an ID card starting at the age of 16, see above. Between the age of six and sixteen ownership is not mandatory. Children below the age of six are not issued an nPA.

1-4. The ID-number is related to the document, is newly assigned when a new nPA is issued. If you lose your nPA you have to apply for a new one. Also the validity of the document is limited to ten years (six years for those below the age of 24, cf. § 6 para 1 and 3 respectively PAuswG).

1-5.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printed on the nPA and also stored in digital form to be read out via RFID, or - where noted - only stored digitally. Some access control mechanisms for reading out the information are in place. All this is regulated in § 18 PAuswG./ name, address, date of birth, gender, color of eyes and height, photo: yes, must be biometric, thus biometric data is stored on the cards storage, finger prints: optionally stored in digital format, Maiden name, and where applicable: alias (for artists only), academic title (PhD), nationality, place of birth, ID number, date of expiry, Additionally, the nPA provides a number of electronic features supporting * an identification mechanism for individual services, accessing this information, yields an application process for the service provider, and requires certain technical mechanisms in place, cf. § 21 PAuswG and, finally, a ("qualified") digital signature can be stored on the nPA, cf. § 22 PAuswG.

1-6. The use of the data on the nPA is tightly regulated. In principle the ID, and similar data must not be used to allow automatic retrieval of personal data, cf. § 20, para 3 PAuswG.

1-7. The law mandated the issuer (ie. the governmental authority in charge) to take all appropriate action to ensure identification. Usually, verification relies on prior ID-document and birth certificate, but all relevant documents can be considered. The law, however, specifically requires copies of these documents to be deleted, as soon as the identity has been verified.

2.

2-1. Yes if you didn't have a passport before. In that case the old passport is sufficient. If you had neither ID card nor passport a birth certificate is required, see also above 1-7.

2-2. No. Again, the governmental authority may require all necessary documents to verify the identity of the applicant. Often this will be the ID-card, i.e. the nPA. But it must delete or destroy all copies of such documents, as soon as the process is concluded. References: Passgesetz http://www.gesetze-im-internet.de/pa_g_1986/index.html

2-3. Yes, this will usually rely on either ID card or Passport. Since ID cards are mandatory at the age of 16, and Driver's licenses can only be issued at the age of 18 this should work in most cases. However, this may differ in cases of applicants without German citizenship. The respective legal framework requires the applicant to demonstrate and prove its identity.

2-4. No

2-5. This largely varies. Some - early - services allow for verification based on the capabilities of the nPA. Others, may only rely on self-authentication, yet again others with higher assurance requirements will usually not solely rely on online mechanisms, but require some written application.

2-6. There is a sector specific Tax Identification number ("Steueridentifikationsnummer", different from the term "Steuernummer", which is related to value added taxation (VAT) for those conducting businesses), see above, also cf. § 138b Abgabenordnung (AO). Reference: http://www.gesetze-im-internet.de/ao_1977/index.html

2-7. ID for taxation is different from the serial numbers of all other Identification documents. For the latter, the law requires these not to be linked to personal data, when stored. So they must not be linked to the ID for taxation. However, linkage is no problem via the elements of Name, Date of birth, and place of birth, which are often stored together, and will usually provide sufficiently unique identification for all relevant and thinkable cases.

2-8. Employers need to collect both the Tax ID and the social security numbers to administer their obligations in context of accounting. Both income tax and social security expenses are administered by the employers in Germany. This does, of course, not apply to those who are self-employed.

2-9. In Germany these are different services, issued by different authorities. For unemployment services an ID card is needed, not for child support

2-10. No. Such linkage is prohibited. Social welfare does not even require a formal application.

2-11. Identification is usually based on the Health Card ("elektronische Gesundheitskarte", eGK), or, if private health insurance is applicable, name and address is required, which may be requested to be supported with an ID-document, e.g. the passport or nPA.

2-12. No

2-13. Health insurance fees are calculated as a percentage of income, thus: yes. There is no direct access to taxation records, but the person insured may be obliged to file his income tax declaration with the insurance company, e.g. if she is self-employed.

3.

3-1. 이하 답변없음.

3-2.

3-3.

3-4.

3-5.

3-6.

3-7.

3-8.

3-9.

3-10.

4.

4-1.

4-2.

응답 13 - 독일(2)

0.

Your name: Sabine Sosna

Your email address: ref4@bfdi.bund.de

Affiliation: Legal Adviser at the Federal Commissioner for Data Protect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Germany

Where do you live (name of the country) : Germany

1.

1-1. Thinking of a national ID, the “Personalausweis”, the identity card, which is an official document, comes in mind. The identity card has a unique ID number.

But if you think about the use of ID numbers, it is unclear if the number of the identity card is the most used, because the use and processing of this ID number is strictly limited by law.

1-2. mandatory. Every German citizen with a permanent residence in Germany is obliged to have an identity card from the age of 16. If you are not yet 16 or you do not have a permanent residence in Germany you can apply for an identity card.

For foreigners there is a similar card, the “Aufenthaltstitel”, a residence title.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resident titles depending on the background of the person (EU or non-EU) and the range of the permission for the residence.

1-3. The number is assigned when the card is issued.

1-4. If you get a new identity card, e.g. because you lost your card or you changed your name (e.g. if you marry) you get a new card with another ID number. The ID number is not “descriptive”, that means that it does not contain aspects of the personal data, e.g. abbreviations of the name or numerics of the date of birth.

For other sorts of ID cards this is different: the tax payer’s account number, the health insurance card number and generally the social insurance identity card number does not change.

1-5. Name (first name, family name, name of birth; a doctor’s degree, if applicable, optional), address, age and place of birth, eye colour and height, photo, finger prints(optional), nationality, ID number, religious name, artists name (if applicable, optional); on the card you can also see the date of issuing, the date of expiry, the signature, the issuing authority and a number that you need if you use the electronic ID-Service (the card contains a chip) and forgot your password.

1-6. Explanation: in the Federal Data Protection Act of Germany “processing” is specified as followed: “Processing shall mean the recording, alteration, transfer, blocking and erasure of personal data.” “Use” is specified as followed: “Use shall mean any utilization of personal data other than processing”.

The use/processing of the ID number of the identity card is limited by law. Most of the private entities are not allowed to use/process it, because there is no accepted purpose to do so. It is especially illegal to use/process the number in a way that makes it possible to link it with other personal data or to process data automatically.

Public authorities may use/process the ID number for the identification of a person, if it is necessary, but recording and linking the number with other personal data is even more limited. The ID number is recorded in identity card registers by the issuing authorities. The registers are local and the access to them is also limited.

1-7. When you get the ID card, you have to bring your old ID card or your passport (if you have one) to identify yourself. Sometimes it is necessary to bring other documents as well, e.g. a birth certificate. You have to apply for the identity card in person.

2.

2-1. The identity is normally verified by an existing identity card or the old passport. If those do not exist or the identity is still unclear, you have to bring other documents (e.g. a birth certificate, a citizen certificate). In particular cases it is possible to bring witnesses, to do a DNA-Test or adjust with police records.

2-2. The issuing authority keeps a passport register, similar to the registers of the identity card authorities (local registers). The passport also contains an identity number which is recorded in the passport registers. The number of the identity card is not recorded there. The same applies to other personal data of the identity card that the passport does not contain.

2-3. The identity is verified by an official document that proves date and place of birth. Normally this is the identity card or the passport. You can apply for a German driver's licence if your permanent residence is in Germany, but you do not have to be German.

2-4. The identity card number is not recorded. The authority that issues the driver's licence keeps a register of driver fitness and a central register of driving licences.

The register of driver fitness contains – amongst other data – the name, doctor's degree, gender, date and place of birth, address, nationality and the number of the driving licence (Fahrerlaubnisnummer, the number of the permission itself as an administrative act).

The central register of driving licences contains the above mentioned personal data plus the number of the driver's licence (meaning the document which the driver has to carry with him).

2-5. This depends on the kind of e-government service, but the identity card contains a chip which can be used to verify your identity online. Only those data are transmitted that are necessary for the kind of service (principle of data minimization). The system is very "privacy friendly". You can find more information about the eID function of the identity card on www.personalausweisportal.de, which is also available in English.

2-6. For taxation purposes there is the taxpayer number ("Steueridentifikationsnummer" - taxation identification number), which is a number that every natural or legal person owns. Since 2008 every natural person gets a unique taxpayer number by birth which is valid through his lifetime and is deleted not before 20 years after the death. The taxpayer number is recorded in a central register at the Federal Central Tax Office. The use/processing of the taxpayer number is strictly limited to financial authorities and only due to the nature of the administrative task to be performed or if permitted or ordered by law.

2-7. No.

2-8. Employers collect personal data that are necessary for paying salary, taxes and social security benefits. In this context the taxpayer number and the social security/insurance number is collected.

2-9. Due to data protection there is no social security number as an access to all social services. Therefore a German citizen has, for example, one number for public health insurance and another for the statutory pension insurance scheme.

The national ID number meaning the identity card as mentioned above is not used to identify a person for reasons to have access to welfare services.

2-10. The national ID number meaning the identity card as mentioned above is not linked to any number for welfare services.

2-11. If you are covered by a public health insurance you get a health insurance card. Showing this card at a hospital identifies you as an insurance owner. Then most of the cost are borne by the insurance company. People who are covered by a private health insurance do not necessarily have such a card. They must identify themselves (normally by showing the national ID) and get a bill. The incidental costs can be claimed back from the private insurance company or other institutions.

2-12. In Germany the national ID is not linked to the number of your public health insurance. On the contrary it is forbidden to take the number of the statutory pension insurance scheme for the ID of your public health insurance.

2-13. Generally a public health insurance provider does not have access to your taxation records. There is, however, some kind of exchange of information about your income. For instance, certain persons must show their public insurance company a record of their income. On the other hand, the insurance company must transfer some information to the tax authorities.

3.

3-1. The Federal Commissioner is not competent to answer those questions, because schools are being supervised by 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ers of the federal states. As we know from our colleagues in the federal states the legal basis is not consistent. Sometimes parents have to prove the identity of their child by showing a birth certificate or other kinds of documents when subscribing their child at a school. Sometimes no kinds of documents are required.

3-2. As far as we know this is normally not done. In some states it is even forbidden by law, in others it is permitted under special preconditions.

3-3. Student cards are normally issued on the information of the school database and are often issued directly by the teacher who should know the identity of his/her students.

3-4. If you open a bank account or apply for a credit card, you can do this in person or online.

If you do this in person, the bank usually takes a copy of the identity card or the passport.

If you do this online, some banks use the eID-online-function of the identity card. The necessary personal data is then transmitted online securely. Otherwise you register online and afterward have to show your identity card to a company that does the identification for the banks. All the data of the identity card is recorded.

3-5. Yes, normally they do, but this is a controversial matter between the different supervising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at no private entity is allowed to use the ID number in a way that makes an automated processing possible.

3-6. It depends. The telecommunication act requires providers of telecommunication to verify the correctness of the customers' data they collect. However there is no regulation on a certain method. Usually providers require to provide some sort of ID card when contracting for a mobile phone, however this is usually limited to Point of Sale transactions (but here without a distinction between pre- and postpaid contracts). However there are still several ways to order prepaid contracts over the internet, where a registration is possible without verifying the data by some sort of ID.

3-7. No they are not allowed to as this data is not considered to be relevant for providing telco-services.

3-8. They may ask to see some sort of Photo ID, to verify the data of the contract.

3-9. The Federal Commissioner is not competent to supervise private sector services besides telco providers and postal service companies. Because of our federal system in Germany we have several Data Protection Commissioners in the federal states. They are competent to supervise those private entities that have their place of business there.

We presume that there is normally no permission to collect these numbers, because there is no necessity to do so, but presume also that some providers will do so nevertheless.

3-10. To prove whether a person is over 18 it is possible to use the eID-function of the identity card. In this case the chip of the card only transfers the message to the provider that the person is over 18, if there is no more data necessary.

Beside this possibility we have no overview on how site operators verify the user`s age, because this is not in our competence (see above 3-9.). We presume that this is normally done paper based, especially if the online content is based on a permanent contractual relationship. Paper based means that the operator requires e.g a copy of the national ID or the birth certificate. Sometimes there is only a self statement meaning that there is no verification at all.

4.

4-1. The national law concerning the use of the national ID number is quite strict, and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online services we think that the entities observe that law in most of the cases. The bigger problem are the still widely used paper copies of identity cards. The identity numbers are normally visible on those copies, although they should not, and those copies are often recorded longer than necessary.

4-2. The mentioned eID-function of the national identity card is a good recommendation for that balance.

응답 14 - 루마니아

0. 비공개

1.

1-1. CNP (cod numeric personal) personal numeric code of 13 digits: 1. gender 2-7 year, month, day of birth 8-9 area (county) code 10-11-12 random number 13. verification code

1-2. Mandatory

1-3. ID is assigned at birth.

1-4. Cannot change it.

1-5. Local authorities' registrar offices issue personal ID card at 14 and renew it - if lost or stolen, if name or address changes occur, if it expires - every 10 years. name, address, date of birth, gender (male, female), photo, place of birth, 13 digit personal numeric code (CNP), ID card identification code containing two non-random letters (to identify the county of issue) and 6

serial digits. For instance BV135498 would mean that you are a person resident in Brasov county.

1-6. Law 677/2001 states that agencies collecting and processing personal data - not only the ID number, but any data that can individualize a person - have to obey the law. The regulation is part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law 677/2001, but because of a scandal related to the 2011 census, when citizens were opposing interviewers asking their CNPs, a specific rule (Decision nr. 132/2011 of the Personal Data Processing Authority Presidency) was put in place to make it more clear how these data are processed and used: only within the declared scope, and not to be given to third parties.

1-7. People are required to show in original a birth certificate, a document certifying your address (property contract or lease contract in original) and the marriage certificate, if any.

2.

2-1. If older than 14, ID card is necessary. If younger, h/er birth certificate and parents' or legal representatives' identification documents is verified.

2-2. yes

2-3. yes

2-4. yes

2-5. CNP

2-6. CNP

2-7.

2-8. yes

2-9. CNP

2-10. most of public welfare services use same ID number, CNP

2-11. CNP

2-12. we have no health insurance number yet - health card is soon to be issued and regulated.

2-13. yes. we pay health insurance according to our income level.

3.

3-1. yes, cnp (birth certificate and id card)

3-2. Schools, universities register students' CNP for their internal electronic databases and for allocating scholarships - the registrar of a university told me in a phone interview.

3-3. CNP

3-4. ID card or passport - both contain CNP.

3-5. yes

3-6. It depends. No need to identify yourself for pre-paid service. the law is about to be issued: pre-paid card holders will be identified too - it is a step back, civil society activists say.

3-7. yes, CNP

3-8. CNP from ID card or passport

3-9. yes

3-10. do not know

4.

4-1. Romania took a step back since 2012, compared to the previous government cycle: first, Romania rejected the EU law (blocked since) concerning the obligation of ISPs to collect and store user data. Present government (in power since 2012) has adopted the law and it is about to toughen it, by collecting id data from pre-paid mobile service clients too.

4-2.

응답 15 - 남아프리카공화국

0.

Your name: Anriette Esterhuysen

Your email address: anriette@apc.org

Affiliation: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Where do you live (name of the country) : South Africa

1.

1-1. National Identity Document, ID number. We have just one system.

1-2. Mandatory. Everyone is assigned a unique ID number at birth. No need to apply for one. ID numbers are assigned at birth but you have to apply for an ID document when you are eligible which is when you are 16 years of age. I don't think that it is illegal to not apply for an ID document, but, without it you cannot vote, or get a drivers license or a passport or access many other services. The number assigned at birth – if you are born in South Africa – will appear in your ID document. <http://www.home-affairs.gov.za:8087/index.php/identity-documents2>

1-3. Birth

1-4. I think that changing will be possible but not easy.

1-5. Name - YES / address - YES / date of birth - YES / gender (male, female) - YES / physical characteristics (eye color, height, etc.) - NO / photo - YES / finger prints - YES

1-6. It is used by just about everyone you deal with from banks to hospitals. I am not sure if collection is regulated.

1-7. I don't know. But I found that there is this site which can be used to verify IDs. I guess businesses use it. <http://geekswithblogs.net/willemf/archive/2005/10/30/58561.aspx>

2.

2-1. Through your ID number and document. You need an ID doc to apply for a passport.

2-2.

2-3. Same as with passport.

2-4. Yes, it does, and it displays your ID number. A drivers license can also be used a legal form of photo ID if you don't have your ID document on you or your passport.

2-5. ID doc or drivers license. But ID document is often the only way.

2-6. Taxpayer number.

2-7. I don't know. You can have a tax number without an ID number – e.g. if you are not a South African citizen.

2-8. Usually only your tax number for tax but they will also collect your ID number, even if not for tax purposes.

- 2-9. National ID number.
- 2-10. Yes – everything.
- 2-11. National ID number.
- 2-12. Yes or it is the same number.
- 2-13. No – only the tax dept,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can access your tax records. Police can if they have court order.

3.

- 3-1. ID numbers or passport numbers if they don't have one.
- 3-2. Parent's ID no or passport no if they are not nationals.
- 3-3. Only universities would issue such cards. I don't think they verify beyond asking for photo ID when you register.
- 3-4. National ID or passport no of you are not South Africa.
- 3-5. Yes
- 3-6. Yes, for both.
- 3-7. Yes
- 3-8. ID doc or drivers license or passport – photo ID.
- 3-9. Just ID number or passport no. But you can refuse to give it to them.
- 3-10. No idea

4.

- 4-1. I really don't know. All online transactions that I do only ask for credit card details.
- 4-2. separating tax numbers from ID numbers is essential. I would prefer if service providers did not ask me for my ID number when I enter into a contract with them.

응답 16 - 수단

0.

Your name: Assoc. Prof. Dr. Rashid A. Saeed
Your email address: eng_rashid@hotmail.com
Affiliation: Professor and Consultant for Home affair minstry in IT projects,
Where do you live (name of the country) : : Sudan

1.

- 1-1.
- 1-2. mandatory
- 1-3. at birth
- 1-4.
- 1-5. name, address, date of birth, gender, photo, finger prints
- 1-6. there is restriction for some info. ; All goverment sectors can use it. however still we didn't open for private to use it
- 1-7. Nationality certificate and birth day certificate, also first of kin ID card

2.
 - 2-1. by ID card, yes
 - 2-2. yes, they have close relation and mutual information exchange
 - 2-3. Yes, Yes
 - 2-4. Not yet but plan to do so,
 - 2-5. we don't have e-governance yet but the plan to use the ID number
 - 2-6. we don't have e-governance yet but the plan to use the ID number
 - 2-7. they usually get the taxation from the salary for those work in the goverment. for those non goverment the collected based on your company registerarion
 - 2-8. yes
 - 2-9. NO
 - 2-10. NO
 - 2-11. NO
 - 2-12. NO
 - 2-13. NO

3.
 - 3-1. NO
 - 3-2. NO
 - 3-3. NO
 - 3-4. ID card
 - 3-5. yes but mainly from the ID card
 - 3-6. Yes
 - 3-7. yes
 - 3-8. mobile number
 - 3-9. NO
 - 3-10. question no verification

4.
 - 4-1. improving and going fast
 - 4-2. yes this is big question and huge depate we still prefer to get safety rather than efficiency

응답 17 - 우간다

0.
Your name: Lillian Nalwoga
Your email address: lillian@cipesa.org
Affiliation: CIPESA
Where do you live (name of the country) : Uganda

1.
 - 1-1. National passport
 - 1-2. Optional

1-3.

1-4. NO

1-5. name, address, date of birth, gender (male, female), physical characteristics (eye color, height, etc.), photo, finger prints

1-6.

1-7.

2.

2-1. Use other IDs like driving passport, village identification

2-2. Yes

2-3. Yes, you need to have other identity cards i.e passport, employer ID, birth certificate,

2-4. Yes

2-5. Need to present an original hard copy of the ID

2-6. Taxation Identity Number (TIN)

2-7. Enrolment for the national ID has just started so no sure how this will be linked to tax payer number

2-8. Yes

2-9. these services are not currently implemented in Uganda

2-10. No

2-11. none in particular – any ID can be used

2-12. No

2-13. No

3.

3-1. Yes, through presentation of other school certificates any identification ID such birth certificate,

3-2. no

3-3.

3-4. Through presentation of original IDs like national passport or driving permit, proof of residence by providing a letter from your area local council or any utility bill, letter of employment from employer or employer ID

3-5. Yes

3-6. Yes

3-7. Yes

3-8. Yes

3-9. Yes

3-10. I wouldn't know

4.

4-1. Current efforts are underway to register national ID. However it's not clear how government intends to protect citizens data or their privacy considering Uganda does not have a data protection and privacy law.

4-2. Users should be sensitized about these systems and also it should be made clear on how their privacy will be protected.

응답 18 - 필리핀

0.

Your name: Alan Alegre

Your email address: alalegre@yahoo.com

Affiliation: Foundation for Media Alternatives

Where do you live (name of the country) : Philippines

1.

1-1. The Philippines has no compulsory national ID system per se. Previous administrations tried to implement it, but a case was brought to the Supreme Court and the latter junked it several years ago (in the 1990s), but did it on a technicality that a law had to be passed (by Congress) to implement such a system, and not merely an Executive Order.

However the past few administrations have tried to implement a modified version of this measure to enhance efficiency in the light of different numerous ID systems co-existing in the country (e.g., Social Security, Internal Revenue, housing welfare funds, health insurance, even voting eventually). A Unified Multi-Purpose ID (UMID) system has been implemented to integrate all these ID's into one.

The UMID is considered optional for citizens, but is being actively promoted for the above purpose, but is in principle mandatory for all government employees, as a sort of pilot implementation.

In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e UMID is being redesigned in the light of the more extensive application to government services online; a new integrated citizen's registry number is being contemplated and discussed, but also in an optional way for people to access e-government services online with some basic security measures (e.g., Public Key Infrastructure) through the new PH government portal.

1-2. Optional. SEE ABOVE RESPONSE.

1-3. The UMID is assigned on the period when it is requested (e.g., by citizens) or when the particular government agency implements it within their organization.

1-4. Don't know.

1-5.

1-6.

1-7.

2.

2-1. Passport application will be processed only upon submission of a valid and verified birth certificate by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NSO), and a clearance from the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NBI).

2-2. N.A.

2-3.

2-4. N.A.

2-5. It is now just being implemented and under discussion. A CRN is being contemplated via the UMID.

2-6. Filipino citizens of age are given a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

2-7. N.A.

2-8. For taxation purposes, only the TIN is required.

2-9. For social security, housing, and health insurance, different ID's were issued, which the government is now trying to integrate into the UMID.

2-10. N.A.

2-11. Our country implements health insurance via the government 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HIC or PhilHealth), which issues a PhilHealth number. Again this is trying to be integrated under the UMID.

2-12. N.A.

2-13.

3.

3-1. Schools typically ask at least one identification document, typically a birth certificate issued by the NSO upon registration.

3-2.

3-3. Once a student is accepted into a school, a student ID number is issued, and is renewed every semester or school year. Verification happens at the time of registration.

3-4. They typically require the submission of identity via at least two valid government issued IDs (e.g., passport, drivers' license, or social security ID's)

3-5. N.A.

3-6. It depends. No need to identify yourself for pre-paid service. Anyone can buy a prepaid SIM over the counter.

3-7. Upon application for a post-paid mobile service, mobile phone carriers typically ask also for at least one (two) government issued ID's, and a proof of billing (e.g., past billing invoices of utilities like water/electricity, cable bill or credit card bill) to verify address.

3-8. See above.

3-9.

3-10.

4.

4-1.

4-2.

응답 19 - 콜롬비아

0.

Your name: CAROLINA BOTERO

Your email address: carobotero@karisma.org.co

Affiliation: Karisma Foundation

Where do you live (name of the country) : Colombia

1.

1-1. BIRTH CERTIFICATE, TARJETA DE IDENTIDAD AND CEDULA DE CIUDADANIA

1-2. Mandatory

1-3. IT USE TO BE AT AGE 18, CURRENTLY IS STIL AGE 18 BUT THE NUMBER IS THE SAME THAT THE UNE GIVEN IN THE BIRTH CERTIFICATE (NOT LIKE THAT BEFORE). this is truth for my daughters, for me each document had a different number. On the other hand the passport is issued paralell to these document and will include it, but will also have the number of the "notebook" (not sure of the word)

1-4. YOU CAN REPLACE IT WHEN IT IS LOST OR STOLEN, THEY GIVE YOU A COPY. HOWEVER DURING MY LIFE I CHANGED IT ONCE WHEN THE STATE CHANGED THE SYSTEM

1-5. name, date of birth, gender, physical characteristics, photo, finger prints ONLY THUMB, SIGNATURE, DATE OF EXPENDITURE

1-6. ANYONE CAN BUT THE REGULATION IS REGARDING DISCLOSURE

1-7. WHEN YOU ARE BORNED A BIRTH CERTIFICATE IS USED AND THAT IS USED TO ISSUE A "TARJETA DE IDENTIDAD" AT AGE 7, YOU WILL CHANGE THAT ONE WHEN YOU ARE 18 FOR THE DEFINITIVE CEDULA.DE CIUDADANIA FOR THE CEDULA TO BE ISSUED YOU NEED TO BRING YOUR BIRTH CERTIFICATE AND DELIVER THE FORMER "TARJETA DE IDENTIDAD"

2.

2-1. YOU NEED AN ID (ACCORDING TO YOUR AGE)

2-2. YES

2-3. YES THE CEDULA DE CIUDADANIA

2-4. YES

2-5. WITH THE ID CARD (CEDULA)

2-6. CEDULA AND ANOTHER TAXPAYER NUMBER THAT YOU WILL BE GIVEN AND IS TIED TO THE CEDULA

2-7. YES

2-8. YES

2-9. CEDULA WILL ALWAYS BE REQUESTED

2-10. THE CEDULA WILL BE REQUIRED

2-11. CEDULA THAT IS TIED TO THE DIFFERENT SERVICES YOU MAY HAVE

2-12. YES

2-13. NO

3.

3-1. YES WITH THE BIRTH CERTIFICATE, TARJETA DE IDENTIDAD OR CEDULA DEPENDING ON AGE

3-2. YES

3-3. WITH THE BIRTH CERTIFICATE, TARJETA DE IDENTIDAD OR CEDULA DEPENDING ON AGE

3-4. WITH THE BIRTH CERTIFICATE, TARJETA DE IDENTIDAD OR CEDULA DEPENDING ON AGE

3-5. YES

3-6. YES

3-7. YES

3-8. YES

3-9. YES. Local ISP. If you are paying your mobile phone more than asking for your cedula once you log in the service they know it. In general all local services are tied to your ID number. If my Internet service fails and I call or contact the ISP online one of the questions to verify who is calling will be the ID number of the contractor, Now that you say, when I pay with Credit Card normally I am not asked to give my ID number... unless I am in a very local system, but the general one will not request my ID number also because once I give the data bank they will know it. The use of ID number is so generalized here that for you to access a building you will be request to show your ID (private or public buildings) so that they can register who is and confirm it is the person who is there.

3-10. THEY ARE MOSTLY FOREIGNERS. Adult content will be mostly offered from foreign services so probably it is not tied to the ID number. If there is engagement with a local provider then probably, but I don't really know

4.

4-1. IT IS USED ALWAYS FOR US IT IS NORMAL, BUT OF COURSE WHEN YOU SEE OTHER COUNTRIES YOU CAN SAY IT IS EXAGGERATED. I do not know how much you now about Colombia but we have been in a civil war for the last 50 years, yet we are the "oldest democracy in the region". Numbers are terrible we have had more disappeared people than in any of the terrible dictatorships in the region (Argentina, Brazil, Chile, Peru...) the internal refugees in Colombia are the 2nd in size in the world (the official numbers say 5million people from a population of 47million), during the 80s bombs were a normal threat here...

The use of armed guards, bars and ID numbers or finger prints are part of the idea of "citizen security" that is wide spread. We are USED to be required for it very often and most people believe it is normal and moreover, an IMPORTANT need for our own security.

We have faced scandals on surveillance by government (karisma.org.co/?p=3900) so big that leaks of ID numbers are small.

We have had some personal data hackatons to show the government how some of their webpages are leaking personal information (among other the ID numbers) and this is a crime (we have had an habeas data law for one year know), but we have been more on an attitude of "education". The truth is that general Colombians understand that citizen security is a higher value that requires a lot of sacrifices.

I am not sure you get it...

4-2.

응답 20 - 아르헨티나

0.

Your name: Roxana Bassi

Your email address: rox@apc.org

Affiliation: APC

Where do you live (name of the country) : Argentina

1.

1-1. 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 or DNI

1-2. Optional.

1-3. when you ask for it, normally a few weeks after birth

1-4. No

1-5. name, address, date of birth, gender, photo, finger prints

1-6. No restriction, it is public

1-7. Using a birth certificate + prints (fingerprints)

2.

2-1. yes, you need to have the national ID card + birth certificate the first time

2-2. Yes

2-3. yes, you have to have an ID card

2-4. yes

2-5. None available.

2-6. taxpayer number

2-7. yes, it is the national id number plus a few more numbers

2-8. yes, all of them

2-9. national ID

2-10. No

2-11. national ID

2-12. No

2-13. No

3.

3-1. National ID + birth certificate

3-2. Yes

3-3. National ID

3-4. National ID

3-5. Yes

3-6. Yes in all cases

3-7. Yes

3-8. Yes

3-9. Yes, the database of name+national id is public. not sure how the verify your identity at all...

3-10. No idea

4.

4-1. No idea

4-2. No idea

응답 21 - 일본(1)

0.

Your name: Takashi SHIRAISHI Mr.

Your email address: kanseiwakingupua1950@yahoo.co.jp

Affiliation: Privacy Action

Where do you live (name of the country) : Tokyo JAPAN

1.

1-1. 共通番号制度 My number system• (national identification number system) There is not the name of the official English name. We call it a coserial numbers system = kyotu Bango.

1-2. Mandatory

1-3. At birth. When it was made resident registration exactly

1-4. Yes. When it might be abused, I can change it by self-assessment or an administrative judgment

1-5. name、 address、 date of birth、 gender (male, female)、 photo、 ID number, Other: IC tip. Publication local government name

1-6. The purpose of use of the ID number is established in a law. The ID number which collected is not available other than the purpose. However, there is an escape clause to be available freely

1-7. We mail an application to the publication organization. A notice has been sent by the publication organization. We take a letter of advice in the local government living in. It is in the local government and shows a driver's license and a passport. A photograph of the face is indispensable to documents to collate

2.

2-1. At the time of the first application, We submit a family register, a photograph of the face, an application, a return postcard. The local government of the publication organization collates it in resident-registry network system (zyuki net). The local government mails a postcard to the home. With a postcard, We go to the loc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hands us a passport by a postcard and exchange

2-2. The new national ID number system is carried out from October, 2015. The ID number is necessary for passport publication, but does not understand the detail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that a publication period collects. publication organization possesses only a personal number of the nationwide resident-registry network = jukinet

2-3. It is the same as passport publication

2-4. It is the same as passport publication

2-5. When We enroll in the electronic authentication organization, it is available. The nationwide resident-registry network is used for the person confirmation of the e-government service

2-6. The tax payer number that We unified does not exist now. The National Tax Agency holds an original number of the national unification. The local government holds an individual number. Income tax is a national tax. The National Tax Agency posts a number. The residence tax is local rates. A local government posts a number separately.

2-7. It is linked from October, 2015

2-8. Employer write a tax payer number as an ID number, and tax practice declares

2-9. From October, 2015, an ID number is used. About the pension, an original general number is used. The health insurance, A plural administration organization exists. Each posts an original number. The nursing care insurance posts a number every local government. In other words 、 The number that I unified is not found now

2-10. From October, 2015, an ID number is used.

2-11. A health insurance is used for the time being. In Japan, the health insurance engine is divided into a private enterprise under the government management, a syndicate, the local government, and there is not the general number

2-12. It is linked from October, 2015

2-13. The person or an employer reports the situation of the income

3.

3-1. A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s necessary

3-2. No

3-3. It is based on resident registration proof and self-assessment

3-4. Japan has a law to oblige it to person confirmation. According to the law, we show some kind of certificates with the photograph of the face and submit a copy

3-5. From October, 2015, an ID number is used. Only confirm that it is the person. For the person confirmation, use the certificate which a public institution published. For example, it is a passport, a driver's license

3-6. Yes. It is the same as an answer to 3-5. Only confirm that it is the person. For the person confirmation, use the certificate which a public institution published. For example, it is a passport, a driver's license.

3-7. Yes

3-8. Identification card with a photograph of the face

3-9. yes

3-10. Only as for the person application. The person who accessed the site only reports it for itself

4.

4-1. I do not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question well

4-2. I think should stop the available coserial numbers in other fields. The number system according to the field is better choice

응답 22 - 일본(2)

0.

Your name: Hamada Tadahisa

Your email address: taratta@jca.or.jp

Affiliation: Chair, Japan ComputerAccess for Empowerment

Where do you live (name of the country) : Japan

1.

1-1. until 2015: resident register code

from 2016: Common Number (nickname: My Number) (supposed to start in January 2016)

1-2. Mandatory. Resident register code is assigned

1-3. at birth

1-4. Until 2015: we can change our resident register code when we want.

From 2016: we can not change our common number as a general rule. Only if the number is disclosed and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cknowledge the possibility of unauthorized use, the head will reissue the ID and notify to the person.

1-5. Until 2015: basic resident register card contains name, address, date of birth, gender, resident register code number, photo, and other data which identify the person.

from 2016: common number contains name, address, date of birth, gender, common number, photo, and other data which identify the person.

1-6. Until 2015: Only public administration can use the resident register code number.

From 2016: private companies can use the common number.

1-7. Until 2015: basic resident register card is issued when we ask. Our identities are verified by our passports, drivers licenses or letters from official administrations.

from 2016: common number card is issued when we ask. Our identities are verified by the letter of notification of common number from local government, and some cards of identification.

2.

2-1. Until 2015: a family register, a residence certificate or a basic resident register card, a photo, an identification document (photo ID issued by a public institution, such as a driving license)

From 2016: It is unknown. We only know that we do not need a residence certificate or a basic resident register card if we bring a common number card.

2-2.

2-3. Until 2015: a residence certificate or a basic resident register card, a photo, an identification document (photo ID issued by a public institution, such as a driving license)

From 2016: It is unknown. We only know that we do not need a residence certificate or a basic resident register card if we bring a common number card.

2-4. Until 2015: No.

From 2016: It is unknown.

2-5. Until 2015: No.

From 2016: It is unknown.

2-6. 이후 답변없음.

2-7.

2-8.

2-9.

2-10.

2-11.

2-12.

2-13.

3.

3-1.

3-2.

3-3.

3-4.

3-5.

3-6.

3-7.

3-8.

3-9.

3-10.

4.

4-1.

4-2.